

2020 선교사 자녀들의
마음속 이야기



2020 선교사 자녀들의
마음속 이야기

마주 보다

2020 선교사 자녀들의
마음속 이야기



“
마
주
보
다
”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의 위험을 감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를 따라 낯선 선교지에 가게 된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교회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선교사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사를 올바르게 섬기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선교사들의 은혜로운 간증글을 모아 선교사 간증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의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이 안에는 선교사 자녀들의 꾸밈없는 고백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선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엿볼 수 있고, 그들이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씨름하며 성장해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온누리교회가 가진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선교사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혼자서 사역하게 하지 않고 온 공동체가 함께 동역하는 전통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축복하며 파송했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공동체 안에서 늘 기억되고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쪼록 이 간증집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선교사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함께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목사 이재훈

덧붙이는 글

MK는 미셔너리 키즈(Missionary Kids)의 줄임말로 선교사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이번 선교사 간증집은 특히 선교사의 자녀들인 MK의 간증문으로 엮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홉 살 아이부터 스물세 살 성인이 된 자녀까지 삶에서 마주한 선교지 현장의 이야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궁금함을 질문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주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안에 담긴 의미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도록 가급적 아이들의 글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쓰인 글이 다소 투박하고 매끄럽지 않더라도 마음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살릴 때 그 결이 성도님의 마음에 더 깊이 닿기를 바라서입니다. 성장하면서 맞닥뜨린 고민과 아픔은 그 시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성장통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며, 이런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나눌 때 같은 상황 속의 누군가에게는 또한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뒤쪽에는 자녀의 현실적인 고민과 아픔을 들은 부모 선교사들이 미처 몰랐던 그 마음들을 헤아리며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적어주신 편지를 덧붙였습니다. 깊은 우물 같은 사랑의 기도문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간증집 편지글을 통해 선교지에서는 가족 간에 아름다운 관계 회복과 한 차원 더 깊어진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이 글을 읽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해 종은 더 아파야 한다는 시가 있습니다. 일찍 성숙해진 아이들도, 외려 더 늦된 아이들의 지체도 결국 더 멀리까지 울리게 될 아름다운 종소리가 되기 위한 필연의 과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가고 있을 테지요. 기준을 나에게서 돌려 주님께 맞추면 우리 모두가 완벽한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시간에 속하지 않는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음의 아름다운 종소리는 가까운 때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먼 곳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내온 상황에서 그 무엇에도 지지 않고 현장을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잇는 선교사님들과 MK를 위해 성도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ONTENTS

들어가는 글
이재훈 담임목사

목
마
민
주
음
의
눈
은
보
로
다

-
- 12 흔들리지 않는 참믿음 - 네팔 김규(17세)
 - 18 레바논 정착 일기 - 요르단 윤은서(13세)
 - 24 MK, 내 두 번째 이름 - 국내 이아현(17세)
 - 34 나의 고향 Acts29 비전빌리지 그리고 대만
- 대만 김소원(11세)
 - 38 이안이의 대만교회 생활 - 대만 김이안(9세)
 - 44 내 인생 최고의 결정 - 스리랑카 유지혜(18세)
 - 54 모든 것 뒤엔 하나님께서요 - 국내 조폴린(16세)
 - 64 가장 좋은 길 - 일본 이봄(16세)
 - 72 MK로서의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 우즈베키스탄 온유(14세)



 소망을 품고
 마주보다

-
- 82 하나님은 나의 편 - 감비아 이라엘(23세)
 - 92 주의 사랑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 스리랑카 정은송(13세)
 - 100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 - 미국 정찬희(21세)
 - 106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꿈 - 미국 정소명(15세)
 - 114 청년 선교사의 꿈 - 국내 김소망(10세)
 - 122 사랑이의 집콕 생활 - 방글라데시 유사랑(13세)
 - 128 믿음이의 꿈 - 방글라데시 유민음(11세)



 사랑의 마음으로
 마주보다

-
- 136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 코트디부아르 김환(17세)
 - 144 나의 아프리카 정착기 - 모리타니 시엘(19세)
 - 158 의심하는 나를 사랑으로 잡아주시는 분 - 몽골 김민서(16세)
 - 168 우리도 느낄 권리 있어요 - 영국 김다혜(14세)
 - 178 예수님, 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 영국 김혜민(11세)
 - 188 중국에서 라오스로 - 라오스 전유진(12세)
 - 196 조금씩 그러나 계속 - 국내 한정원(19세)



네팔_김규(17세)



요르단_윤은서(13세)



국내_이아현(17세)



대만_김소원(11세), 김이안(9세)



스리랑카_유지혜(18세)



국내_조폴린(1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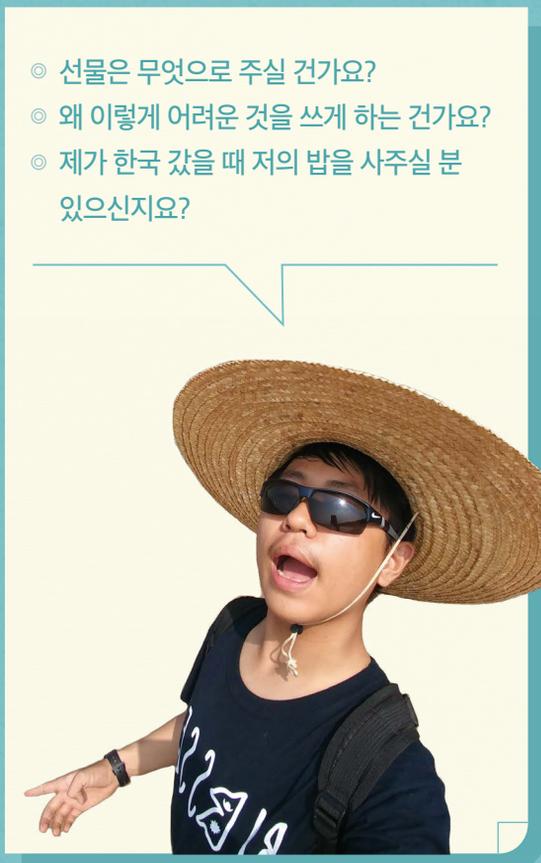


일본_이봄(16세)

믿음의 눈으로
마주 보다

질문이 있어요 ?

- ◎ 선물은 무엇으로 주실 건가요?
- ◎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쓰게 하는 건가요?
- ◎ 제가 한국 갔을 때 저의 밥을 사주실 분 있으신지요?



네팔 · 김규(17세)

흔들리지 않는 참믿음



하나님에 대한 참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유행이나 진화론 같은 가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주며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선교사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처음에는 홈스쿨링 형태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정식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부터 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집 다음으로 가장 편한 곳입니다. 저는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학교야말로 친구를 만나는 곳이고 부모님의 사역 대상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곳입니다. 환경이 열악하여 부족한 것은 참 많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이 선교사이시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님은 안심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가 바뀔 때마다 또는 갑작스러운 비자의 어려움으로 선생님이나 반의 친구들이 떠나갈 때마다 아주 슬펐습니다. 지금은 연습이 많이 되어서 친한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을 해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다. 십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선생님을 뽑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예수님을

민지 않는 분들도 있고, 학교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크리스천이 아닌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문화가 슬며시 우리 안에 스며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한 그룹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론을 주장하고, 한 그룹은 개인적인 체험과 기적 그리고 예배의 행위를 강요하며 창조론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제 안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친구들은 대부분 선교사의 자녀들이었는데 한쪽은 창조론도 수용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룹이었고, 한쪽은 창조론만을 주장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룹에 대한 안타까움과 창조론을 주장하는 그룹의 부실한 설명들이 저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물론 양쪽 그룹 모두에 저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욕이나 음담패설을 상습적으로 내뱉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욕을 배우고 어디에서 음담패설을 익혔는지. 이것은 악한 것에는 아무래도 더 빠른, 죄인 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이 있으면 욕을 하거나 음담패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예배와 찬양, 기도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합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을 비롯하여 다른 세상의 흐름이 학교 안에 유행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저의 신앙을 돌아보고 왜 창조가 맞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보다 영어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어서 영어 성경을 보는데, 최근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가 아닌 참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유행이나 진화론 같은 가설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주며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스리랑카, 인도, 네팔,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 본국으로 철수해서 다시 못 만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끔 통화를 하며 제 친구들에게 성경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네팔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가장 많이 뱅뱅 도는 고민입니다.





부모님의 기도편지

네팔 김일환, 명유미 선교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민하는 규에게

규가 작은 아이일 때 “엄마, 제 고향은 어디예요?” 하고 묻기에 “응, 네 고향은 네팔이야.”라고 엄마가 대답하자, 내심 “한국이야.”라는 답을 기대했던 네가 화를 냈었지. 그랬던 아이가 엇그제 무슨 대화를 하다가 “엄마, 제 생각에 저에게 고향은 네팔인 것 같아요.”라고 본인 스스로 깨달아진 내용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단다. 아들 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살아온 이곳에서 벌써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네.

17년 동안 보통 사람이 겪지 못할 수많은 일 중에서 2015년 대지진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 요동할 때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 곁에 있어 주었고, 지금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3월부터 학교에 못 가는 상황에도 전혀 불평 없이 묵묵히 있어 주는 아들! 사실 엄마는 어린 시절 말씀에 대해 규칙처럼 깊이 묵상하거나 친구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많지는 않았어.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아들 규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안다는 것에 엄마는 세상 무엇보다 기쁨이 된단다. 친구들을 사귄 때에도 세상의 재미에 붙들려 사는 아이들보다 신앙에 대해 깊은 것을 논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가까이하는 것

을 보며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는 “참 재미없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리라 생각한다.

네팔에 살면서 주일학교를 따로 다니지 못해 네팔 장년예배와 CGNTV로 항상 장년예배만 드러서인지 너는 장년설교 말씀도 잘 알아듣고 기억했지. 그런 네가 요즈음 유튜브에서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으며 스피커까지 연결해서 우리에게도 들어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며 엄마는 기쁨의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단다. 그러기에 친구들과도 믿음에 대해, 창조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무 순해서 험한 세상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염려가 엄마에게 있지만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변치 않고 잘 자라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해본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질문이 있어요 ?

- ◎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 ◎ 바벨탑 사건 때 왜 언어가 흩어지는 벌을 주셨을까요?
- ◎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르단 · 윤은서(13세)

레바논 정착 일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데, 나는 하나님
모든 말씀을 듣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레바논에 도착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게 참 힘들었다. 물론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그리울 것이지만 차라리 레바논에서 고생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다. 같이 온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며 놀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예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때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고 영적으로도 성장한 것 같다. 처음 큐티 나눔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을 말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 주신 말씀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때에는 발표와 질문을 잘 했는데 큐티를 나눌 때는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말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 하지만 레바논에서 선교사님들과 모두 모여 큐티를 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니까 자신감도 생겨났다.

우리는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에 가서 바다도 보았다. 하지만 항상 기쁘고 신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엄마가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레바논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

교까지 있는 학교였다. 다행인 것은 학교에 한국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교복을 맞추고 학년 테스트를 하러 갔다. 테스트할 때는 엄청나게 떨렸는데,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레바논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6명이 봉고차를 타고 30분 걸리는 학교에 갔다. 차 안에서 우리는 모두 걱정하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친구도 없고, 공부도 어려울 텐데……. 차가 학교에 도착하면 교실에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느릿느릿 걸었다. 너무 들어가기 싫었지만 이미 교복도 사고, 책도 사고, 학비도 냈기 때문에 엄마가 불쌍해서 가야만 했다. 처음에는 쉬는 시간에 한국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았다. 학교에는 너무 가기 싫었지만, 다행히 레바논 친구들은 착했다. 나는 다이에나라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착한 친구였다. 학교에 적응해가면서 천천히 레바논 친구들과도 놀기 시작했다. 공부 시간에는 선생님이 공책에 적으라는 건 적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줄기도 했다. 한번은 받아쓰기 시간에 선생님이 단어 외우는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내 방식으로 연습하고 있었다. 그때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자신들의 방식을 알려주었다. 여기의 방식이 있었나 보다. 레바논 아이들이 하는 놀이도 배우고, 문화도 조금 배우고, 영어로 대화도 하고,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체로 쓰는 것을 따라 적기 위해 어려운 필기체도 배워야 했다. 그때는 너무 한국으로 오고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레바논도 재밌었던 것 같다.

나는 학교 가는 길에 늘 산을 본다. 학교 가는 길에 엄청 예쁜 산이 있는데, 산이 엄청 높아서 꼭대기에는 눈이 덮여 있었다. 이 예쁜 산을 보면 힘든 마음을 잊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참 아름답고 예뻐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공터에는 풀이 많이 자라 있는데 그곳에 양치기가 양이나 염소들을 데리고 와서 풀을 먹였다. 나는 이런 모습을 생전 처음 보는 것이라서 너무 놀랍고 신기했다. 잘 보니 양치기 개도 있었고, 새끼 양, 새끼 염소들도 있었다. 양들이 풀을 먹을 때 오물오물 씹으며 입을 움직이는데 너무 귀엽고 웃겼다. 양을 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며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생각했다. 부모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런 곳에 오셨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나는 지금도, 그리고 커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레바논의 밤은 정말 깜깜하고 어떤 개들은 늑대처럼 무섭게 운다. 혼자 있으면 정말 으스스하다. 특히 잠을 잘 때 무서웠는데, 그때마다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듣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패밀리 데이에는 선교사님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영화도 함께 보곤 했다. 이런 레바논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새롭게 배운 것도 많고, 하나님과도 더 친해지는 생기 발랄한 시간도 있었지만, 우울한 시간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이 더욱 기대된다.



부모님의 기도편지

요르단 아굴라, 브리스가 선교사

사랑하는 은서야,

아빠는 은서가 태어났을 때, 정말 너무 기뻐한다. 자녀 없이 엄마와 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지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첫 선물이 바로 은서였다. 그것도 너무나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은서를 선물로 보내주셨지. 그렇게 태어난 은서가 벌써 6학년이 되었네.

아빠가 선교사라서, 때론 다른 아빠들처럼 주말에 은서와 함께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은서가 원하는 것을 못 해줄 때도 있지만, 아빠는 은서가 선교사의 가정에 태어난 것을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레바논에 가서 은서가 학교 가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지. 그래도 은서가 잘 해주어서 아빠는 참 고맙다. 학교 가기 싫어서 일부러 아침에 안 일어나고, 가끔은 울기도 할 때면 안타까움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 생활에 잘 따라주고 다른 언니, 오빠, 동생들과도 잘 지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5학년의 나이에 새로운 국가에 가서 새로운 언어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도 기쁘게 따라온 은서, 학교 가기 싫어도 엄마 아빠 생각해서 열심히 학교에 다니는 은서가 참 기특했다.

은서가 힘들 때는 레바논의 예쁜 산들을 보았구나. 아빠는 몰랐네. 레바논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 어린 목동 다윗이 양 떼를 치는 모습도 상상할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걷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지. 우리 그 아름다운 추억을 꼭 기억하자. 힘들었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 그 모든 시간 속에 언제나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자. 힘든 일은 그 당시에는 힘든 것 같지만, 결코 진짜 힘든 것은 아니란다. 한순간 한순간이 지나고 나면, 힘든 일들은 보석이 되어 내 안에서 빛나게 되고, 탐스럽게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단다. 고통이 클수록 보석은 더 크고 아름다워지지. 다윗도 수없이 많은 나날을 어두운 들판에서, 황량한 광야에서 혼자 양 떼를 지키며 두려워했던 시간이 있었어. 그러나 그 두려운 시간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보석을 만들어갔단다. 결국 그 시간이 있었기에 골리앗과 싸울 믿음이 생겼고, 그 거인을 멋지게 넘어뜨릴 수 있었지.

은서가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늘 경험하길 기도한다. 아빠는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은서와 함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 무엇보다도 아빠와 은서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갔으면 좋겠어. 우리 선교지에서 정말 기쁘게 살자. 엄마아빠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서를 보내주신 걸 늘 감사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질문이 있어요 ?

- ◎ MK도 선교사일까요? MK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 아니잖아요.
- ◎ 저는 왜 MK가 되어버려서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까요?
- ◎ MK는 돈을 좋아하면 안 되나요? 저도 부자로 살고 싶어요.



국내 · 이아현(17세)

MK, 내 두 번째 이름



제 생각에 모태신앙은 ‘스무 살까지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으로 쓴 겁니다. 청소년기까지는 가치관과 생각이 만들어지는 나이인데 그 기간을 하나님과 보낸다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모두가 특별하지만, 저 스스로 MK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세 살 때 선교지로 떠났으니 어느덧 저는 14년 차 MK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제가 힘들었던 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저를 더 성장하게 했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높습니다. 잣대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천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타인에게 예수님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해주신 분께서는 좋은 취지로 해주신 말씀이겠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족쇄가 되

어 지금도 저를 저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가끔은 크리스천으로 한번, MK로 한번, 이중으로 족쇄가 채워진 기분을 느낍니다. MK니까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타인이 저의 행실을 보고 혹여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품거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업신여길까 봐 아직도 저는 종교를 잘 밝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강한 신념은 끝내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야 맙니다. 사실 지금도 제 실수로 인해 기독교인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까 두렵습니다. 남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싫지만 저 때문에 주님이 미움받는 것은 더욱더 싫습니다.

저는 돈을 쓰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용돈으로 군것질거리를 잘 사 먹지 않고 주로 다 적금에 넣어 버립니다. 과거 별명이 짠순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돈에 관한 얘기를 하면 오로지 적금에 저축하는 저를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돈을 안 쓰냐, 사람이 맞냐?” 하고 질문을 받을 때면 너무 웃깁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 가정은 후원으로 먹고삽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라서 돈을 벌기보다는 받는다는 느낌으로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후원은 제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것이지만 제 마음속 깊숙한 곳을 항상 불안하게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재정이 어렵다.’, ‘후원이 끊겼다.’ 등의 직접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눈치라는 것이 있다면 굳이 말이 아니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딱히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은 것 같지만 스스로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장벽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을 당한 적도 없는데 돈에 대한 갈망이 어디서 생겨났을까 되짚어보니, 후원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탈출해 안정적인 재정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 갈망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끼 식사가 인당 만 원이 넘어간다면 제 머릿속에서는 큰일이 납니다. 솔직히 8,000 원도 비싸다고 생각되어 외식을 할 때면 맛있고 비싼 것보다 좀 덜 맛있어도 값싼 음식을 고르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부모님은 이런 제 모습을 속상해하십니다.

기독교인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MK는 더 받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차별해서 누구는 조금 싫어하고 누구는 더 싫어하고 그러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싫어하기는 합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21세기의 욱입니까?” 하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제가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 MK치고 너무 평범하고 순탄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테지만 저는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내적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MK이기 때문에 더 싫어하는 걸까 의문이 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보다 마음에 박힌 못이 더 아픕니다. 사탄은 아주 악독해서 끊임없이 저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덧나게 합니다. 과거의 좋지 못한 기억을 꿈에서

여러 차례 보여주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좋은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앞서 MK이기에 저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높다 적었는데 이것 덕분에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살지만 큰 비행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저의 가장 큰 죄는 단어 시험을 볼 때 커닝을 한 것입니다. 가출을 하거나 물건을 훔친 적은 없습니다. 그나마 일탈을 하지 않고 자란 것은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고 MK잖아.’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배짱이 커서 사고를 즐기는 성격이 못되기에 비교적 순탄하게 지냈나 생각해보다가도,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신념과 기준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겁니다. 잘못해도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냥 덮어두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의 최후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에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가니 올바른 회개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회개도 중요하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를 많이 짓고 많이 회개하는 것보다 죄를 덜 짓고 적게 회개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더 기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고를 치고 수습하는 것보다 애초에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것처럼 말입니다.

MK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입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에 선교지로 가는 MK들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상당수가 모태신앙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 모태신앙은 ‘스무 살까지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

으로 쓴 겁니다. 청소년기까지는 가치관과 생각이 만들어지는 나이인데 그 기간을 하나님과 보낸다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면 까먹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마 같은 성격이라 눈으로 봐야만 믿는 유형이라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는 저에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주 성경의 기록된 말씀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반기를 들기도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전 생애를 주님과 함께했는데도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MK로 살면서 느낀 것들을 적어보니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고 더 강렬하게 기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기록할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이 제가 적은 글을 읽으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만 저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건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니다. 과거의 저의 삶이 암울했다면, 다가올 저의 삶은 MK여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선교지로 떠나는 MK들에 “MK여서 행복할 거야.” 하고 자신 있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를 변화시킬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부모님의 기도편지

국내 이훈, 오지영 선교사

사랑하는 딸 아현아!

아빠의 딸로, MK로, 하나님의 딸로 자라나고 있는 아현이에게 편지로 아빠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맑을 아예 햇살 현자. ‘맑은 햇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현이의 지난 삶은 MK라는 이름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겠구나! 세 살에 아빠, 엄마 손을 잡고 필리핀에 처음 가던 그 아이가 이제 고2가 되었으니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다.

아현이가 쓴 글을 읽으며,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랬단다. 아빠가 첫째인 너에게 마음가짐과 행동에 많은 요구를 했었고, 무거운 짐을 주었던 것 같구나! 진심으로 사과한다. 어린 너에게 첫째로서 연년생 남동생에게 조금 참고, 늘 말과 태도,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 생각이 난다. 또한 MK로서 자라오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사와 예의를 지키는 것에 민감했던 것도 너에게 스스로 기준을 높이 갖게 하는 역효과가 있었음을 깨닫고 많이 후회가 되는구나! 온통 미안한 거 투성이네.

‘21세기의 옴’이라고 느낄 정도로 아현이가 많이 힘들었다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사춘기니까, 유별나고 독특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아현이 앞에서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아빠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 좀 더 아현이를 이해하고, 더 알아가도록 노력할게.

아현이가 마음이 많이 아파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고 상담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을 속히 연결하기보다 기도하면 된다고, 이겨내면 된다고 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던 날들이 아쉽게 여겨진다. 재정에 대한 부담과 강박도 아현이가 이제 사춘기의 시간을 잘 보내고, 성숙한 안목으로 이야기 나누어주어 아빠는 고마울 뿐이다. 때로는 친구같이 아빠를 스스럼없이 대하고, 때로는 엄마처럼 잔소리를 하지만, 아현이가 아빠의 딸이어서 좋다! 정직하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잘하는 아현이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 무척 궁금하다.

TCK(Third Culture Kid : 제3 문화 아이)로서의 경험이 아현이에게 외롭고, 힘든 기억들이 되지만, 아빠는 그 경험들이 나중에 아현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후에 또 다른 TCK(Trans-cultural kid : 초문화적 아이)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단다. 물론 아빠, 엄마가 그 잠재력이 발현되기 위해 더욱 사랑으로 이해하고 아현이가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 주어야겠지. 아현이가 알다시피 성경 속 TCK 모델들이 많은데, 모세, 요셉, 다니엘, 에스더, 바울, 디모데 등 모두 성장기의 중요한 시기에 부모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감과 뿌리 의식을 가지기가 쉽지 않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초문화적인 존재’들로 ‘문화와 문화 사이’에, ‘세대와 세대 사이’에 다리 역할을 잘하는 특징이 있다.

아현이가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아현이는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으니 계속해서 열린 존재로 MK/TCK의 삶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표현해 가다 보면 분명 재미있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이나 영역이 보이게 될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꾸나! 아빠가 옆에서 함께 걸어가 줄 테니 계속 여행해보자! 곧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성을 알게 될 거라 믿는다. 언젠가 MK, 그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면 아빠에게도 꼭 알려주렴! 아빠는 아현이의 5년 뒤, 10년 뒤가 무척 기대된다. 과연 어떤 사람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성장해 있을까? 하늘 아빠는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한 말씀 기억하며 미래의 아현이를 만나러 가보자꾸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후서 5:7)



질문이 있어요 ?

- ◎ 엄마 아빠 대만 말고 다른 선교지로 가고 싶은가요?
- ◎ 대만이 좋아요? 중국이 좋아요?
- ◎ 앞으로 얼마나 자주 이사를 해야 하나요?



대만 · 김소원(11세)

나의 고향 Acts29 비전빌리지 그리고 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어린이가 되어 하나님의 높은 뜻,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소원이라고 합니다. 높은 소 자에 원할 원, 높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아이로 자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아이가 되라고 아빠가 지어주셨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노원구 공릉동입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고향은 선교사님들이 훈련하고 안식년을 보내는 Acts29 비전빌리지입니다. 2016년 엄마, 아빠가 선교훈련을 다시 받을 때 처음 비전빌리지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중국에 들어갔다가 중국의 상황이 안 좋아져서 2019년에 저희 가정이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도 비전빌리지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나무도 많고 뛰어놀 곳도 많습니다. 항상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만에 가기 전까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일요일에는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

리고 오후에는 성경을 외우며 활동하는 어와나(Awana)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와 함께 행복하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희 가정은 2019년 11월에 새로운 선교 사역지인 대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중국 숙소를 열 번 넘게 옮겨 다녔는데 몸은 별로 힘들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헤어져야 해서 아쉬웠습니다.

대만은 11월이었는데 한국과는 다르게 꽤 더웠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습해서 그런지 바퀴벌레도 많았습니다. 집에는 개미 천지였습니다. 밖에는 쥐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전에 살던 중국의 서북 지역은 너무 건조해서 황사랑 먼지도 많고 공기도 안 좋아서 바퀴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사람 살기도 어려웠는데 대만은 자연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각종 벌레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밖에 나갔다가 빈대인지 벼룩인지는 모르지만, 발에 수십 대의 물린 자국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너무 간지럽고 괴로워서 비명을 지르며 잠도 잘 못 주무셨습니다.

그래도 대만에 와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대만에는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 저랑 남동생은 집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친구가 별로 없는데 감사하게도 집 근처 교회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태권도 도장이 있어서 태권도도 배우고 친구들도 사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대만 교회에 처음 갔는데, 이전에 모르던 친구지만 우리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만에서 좋

은 추억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제는 저에게 대만도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대만 교회(반청교회)에서 저랑 사귀 친구는 쉬엔즈, 짜쭈, 자쉬엔, 커쉬엔, 샤오은, 샤오쉬엔 입니다. 그중 쉬엔즈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짜쭈은 우리가 한국에 가기 1주일 전에 편지 하나를 썼는데 한국에 가도 자기를 잊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MK로서 대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때때로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가끔 나쁜 친구도 만나지만 그 아이도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대만에 있을 때 몸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서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S보드 선생님과 합창단 선생님, 그리고 영어 선생님, 태권도 선생님이 저희를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선생님들처럼 남이 좋아하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섯 가족이 하나님을 계속 더욱더 경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째로서 동생들을 잘 이끌고 엄마, 아빠도 잘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제일 좋습니다. 어떨 때는 조금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동생들을 잘 돌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가는 어린이가 되어 하나님의 높은 뜻,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

- ◎ 엄마 아빠 선교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 ◎ 한국에는 언제쯤 우리 집이 생길까요?
- ◎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도움이 돼요?



대만 · 김이안(9세)

이안이의 대만교회 생활



엄마 아빠는 선교사라서 자주 이곳저곳을 가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를 따라다녀야 해서 힘들다. 그래도 비행기를 자주 타서
좋다.



나는 MK다. 부모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중국에서 회족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는 두 살 위의 누나가 있고 일곱 살 밑의 여동생이 있다. 원래는 누나 위에 두 명의 누나 형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치료를 잘 못 받아 엄마 뱃속에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누나, 나,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다섯 식구이다. 두 살 위 누나는 잔소리꾼이다. 그래서 나를 귀찮게 한다. 하지만 누나가 없으면 심심하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여동생은 신기하고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한다. 사랑스러운 여동생 때문에 살맛이 난다. 여동생은 귀엽고 통통하고 재미있다. 이제 막 기저귀를 떼고 여기저기 올라가서 물건을 잡아당기고 귀찮게 한다. 그래도 나는 여동생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대만에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은 중국에서 살았었다.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서북 무슬림 지역이었다. 그래도 중국에서의 생활이 난 맘에 들었

다. 아파트 단지도 넓고 놀이터도 있고 맛있는 우육면 식당도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런데 안 좋은 게 하나 있다. 공기가 안 좋아서 중국에서 내 눈이 밤마다 간지럽고 아팠다.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져서 안경을 써야 했다. 중국에 살 때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심심했다. 그러던 중 작년에 갑자기 우리 가족이 중국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잠시 한국에서 생활했다. 주로 비전빌리지 근처 선교사 숙소에서 묵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일학교를 다니며 어와나(Awana)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성경을 외우고 달리기도 하고 친구들도 사귀어서 좋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만에 가야 할 때 친구들이 “너는 에이스니까 가지 마.”라고 이야기했다. 아쉽지만 친구들을 두고 대만으로 가야 했다. 엄마 아빠는 선교사라서 자주 이곳저곳을 가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를 따라 다녀야 한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도 비행기 자주 타서 좋다.

작년 말에 대만에 왔다. 그런데 너무 더웠다. 날씨가 5월부터 35도를 넘었다. 하지만 풍경은 중국보다 좋았다. 이전에 내가 살던 중국은 황사 때문에 창문으로 밖을 보면 산이 잘 안 보였다. 그런데 대만은 중국보다 살기 좋고 집 근처 5분 거리에 교회도 있었다. 중국과는 다르게 대만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처음으로 교회 갔던 날을 잊을 수 없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아이들이 너무 착했다. 그래서 나도 감동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으로 대만에서 동갑 남자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이다. 그

친구 이름은 중국어로 우위광이다. 그 친구는 조금 장난꾸러기다. 주말에 시간이 되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놀았다. 그리고 교회 친구들과 차를 타고 15분 스포츠센터에 가서 교회 친구들과 서바이벌 게임을 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900발 총알을 쏘면서 놀았다. 빨간 팀, 파란 팀, 노란 팀, 초록 팀이 돌아가며 경기를 했다. 나는 초록 팀이었다. 그날 재미있게 놀았다.

우리 가족은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들어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가했다. 거기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감정카드도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카드를 보면서 게임도 했다.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 좋았지만, 한국에 와야 해서 다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오는 길이 힘들었다. 한국에 오자마자 자가 격리 14일을 해야 했다. 좁은 방에서 다섯 식구가 국민체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팔찌도 만들었다. 대만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줄 팔찌를 만드느라 힘들었다. 아직도 한국에 있지만 빨리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대만으로 가서 교회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부모님의 기도편지

대만 김바울, 손애희 선교사

소원이와 이안에게



소원이 이안의 글을 보면서 아빠는 미안함과 감사함을 같이 느꼈다. 편안했던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너희를 낳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사역했던 중국 서북 지역으로 소원이와 이안을 데리고 가기 위해 다시 받는 선교훈련, 기다림, 열 번이 넘는 이사와 중국에서의 철수 그리고 셋째 시연이의 출생, 대만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너희들이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알기에 미안함이 크구나. 사역 이전에 가정이 소중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빠는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가족의 희생을 요구했던 것 같다. 아빠 마음속 깊이에는 중국의 서북에 가난하고 복음이 없어 애처로운 회족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도 컸기에 그런 결정을 내리고 가족들을 고생시킨 것에 대해 미안하지만, 나중

에 너희들이 커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아빠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주리라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미안함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이런 잦은 이동, 중국과 대만을 오가면서 친구들과 헤어짐 그리고 만남이라는 과정을 너희들이 잘 적응해줘서 아빠는 너희와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구나.

막둥이 셋째 시연이가 태어나서 엄마랑 2주간 떨어져 지내는 시간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슬퍼했었지. 그리고 2주 후 만남도 잠시 너희들이 독감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엄마와 다시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소원이랑 이안이가 수많은 헤어짐 가운데 그리움으로 함몰된 인생을 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이토록 밝은 아이로 그리고 잘 적응하는 아이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단다.

선교사 가정이 자주 이동하고 삶의 거처가 불안정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인생의 밑거름이 되기를 아빠는 소원과 이안이를 위해 항상 두 손 모아 기도할게. 사랑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18)

질문이 있어요 ?

- ◎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나요?
- ◎ 저는 제 삶의 바른길을 가고 있나요?
- ◎ 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달라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스리랑카 · 유지혜 (18세)

내 인생 최고의 결정



부모님과 함께 이 신비로운 여행에 함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선택이 제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가
되리라고는 거의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아빠 왔다.” 학교에서 귀가하신 아빠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의 이야기를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스리랑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3,600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비행기로는 7시간 반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5년 전의 일입니다. 부모님은 긴 여행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리 관심도 없었기에 묻지도 않았습다. 사실 이 시기에 부모님과 저의 관계는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열두 살 소녀였던 제 주변에는 즐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때때로 무슨 일인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로 향하고 있을 때, 부모님은 선교사가 되기로 하셨다고 제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 자녀들처럼 저 역시 그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다른 어느 나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도 바뀌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부모님과 함께 이 신비로운 여행에 함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선택이 제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가 되리라고는 당시에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한 해가 지나, 우리 가족이 선교사 훈련을 모두 마치고 태국 비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는 가야 할 나라가 바뀌기까지 다시 일 년을 더 한국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저에겐 마치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기간 우리는 넓은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이사해 살았습니다. 몇 달 정도만 그곳에 머무르리라 생각했는데, 이사는 그리 좋은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두세 달 동안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의 시력은 점점 더 나빠졌고, 극심한 위장통과 두통, 팔다리 통증과 이명 증상 등이 생겼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근처 병원에 데리고 가셨는데, 오진과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 책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시야가 나빠져 안과에 가게 되었는데, 뇌종양이 의심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에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이 일이 저와 부모님 사이에 깊은 사랑이 일깨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믿

습니다.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수술을 해야 했지만, 이 일은 저에게 이전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삶의 작은 것에도 한없는 감사를 드리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수술로 인해 영구적인 시력의 결함을 갖게 되었지만,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동행에서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끌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태국 비자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끝내 비자가 거절되어 결국 다른 나라로 파송 받게 되었고 스리랑카의 올네이션스 국제학교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주 후에 비자가 도착했고 우리는 곧 스리랑카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부터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규율 책을 받아 읽게 되었는데, 양말은 하얀색만 신고, 땀은 머리를 하고, 책가방은 매일 아침 검사받아야 하는 등 상당히 많은 규율이 있었습니다. 학교 첫날은 너무도 긴장했습니다. 친구를 사귄 수도 없었고, 말도 실수하고, 누구와도 소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꽤 빨리 적응해 친구를 사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학급 친구들이 손으로 음식을 먹고 나눠주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문화가 익숙지 않았던 저는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가능한 조금씩만 먹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며 이 또한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곳의 어느 한국 사람보다도 손으로 더 잘 먹을 수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업이었습니다. 저의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저의 상황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영어로 말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작은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싱할라어를 훨씬 더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이 덕분에 저는 싱할라어를 배워 지금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이것도 혼자서 이겨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언어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제게 영어로 이야기하려 애쓰며 이전보다 더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몇 달이 지난 후에는 학교 시스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종종 이곳 선생님들은 출근하지 않아서 수업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 그들을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얘기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에, 때론 선생님들이 특별한 날에는 오시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방과 후가 되면 지루함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이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한국어를 가르치시느라 바빠셨고, 아빠는 싱할라어를 배우러 대학에 가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매일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삶의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마음의 힘든 것도 줄어들었고,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열일곱 살이 되어 대학에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의 삶을 어떻게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계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심리학과 문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바른길로 인도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편지

스리랑카 데이비드, 베라 선교사

소중한 지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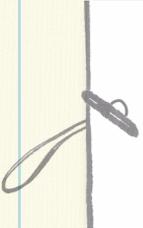
우리가 스리랑카에 온 지도 3년이 넘었구나. 지혜가 마음의 어려움들과 싸우고 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단다. 아빠가 네 모든 질문의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와 아빠가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한 매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확실하게 그것을 알게 될 거란다. 만약 하나님이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를 묻는다면, 당연하지! 하나님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16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보시는 너의 죄나 결점들은 네 잘못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예뻐이라 부르셔. “하나님은 너를 완벽하다 보시고 네 안의 멋진 빛을 취하신단다.” 그리고 그분은 너를 자랑스러워하셔.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하듯, 우리 하나님은 너를 더욱 자랑스러워하신단다. 너는 인정받으려고 무언가 하려 들지 않아도 되고 그 무엇도 하나님이 너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단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

나도 왜 우리가 스리랑카로 왔어야 했는지 몰라. 하지만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네가 이곳에서 친구들을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온갖 재미있는 문화와 사람들이 많은 한국을 네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도 알고 있어. 한국의 패스트푸드들과 무제한 와이파이를 네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도. 하지만 이곳의 아름다운 아이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듣게 되는 것이 너에게 매우 행복한 일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지.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아시며 너의 희생을 축복하실 거야. 네가 선택한 네 삶의 행할 것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야. ‘삶의 잘못된 길’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모든 길은 바르지,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네가 어디를 가든, 네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면 너는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네가 치유를 위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도한 것을 내가 안다. 나 역시 많이 했고. 왜 하나님은 너의 눈을 치료해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한테는 쉽지 않은 일인가? 그렇다면 왜일까? 나도 모른다. 나도 알 수가 없어. 지혜야, 네가 얼마나 다시 잘 보게 되기를 바라는지 나도 잘 안다. 나 또한 그걸 바라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어.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러기를 바란다. 하나님에게 지금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

주지 않으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일하셔. 어찌 보면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신뢰할 수는 있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시지. 부디 하나님만을 신뢰하렴, 내 딸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때에 너는 네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열매를 ‘이해’하게 될 거야. 어느 날 왜인지 이해하게 될 거란 말이다.

나는 너와 같은 멋진 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한다. 너여야만 했고 네가 내 딸이 될 운명이었던 거야. 정말 멋지지 않니?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네가 와야 가장 행복하리란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함께 전하자꾸나.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8-9)



질문이 있어요 ?

- ◎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 ◎ MK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요?
- ◎ 왜 다 하실 수 있으시면서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국내 · 조폴린(16세)

모든 것 뒤엔 하나님이 계셔요



제가 겪고 느꼈던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용감하게 만들었고,
그 모든 일 뒤엔 항상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알기에 저는 더는
두려운 게 없답니다.



저는 네팔의 서부 꼬혈뿔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의 날씨는 한국에 비해서는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장마 때는 동네가 물로 잠길 만큼 비가 많이 오며, 여름에는 45도가 넘게 올라갈 정도로 엄청 덥지요.

그때도 45도가 넘는 굉장히 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꼬혈뿔에 눈병이 한창 유행하던 때 엄마 아빠는 사역에 바쁘셨고, 저는 눈병과 따따로 고생을 했어요. 다행히 1주 정도 지나니까 눈병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병이 낫자마자 저는 수두에 걸렸어요. 한국에서 수두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네팔에 온 것이 탈이었지요.

더운 날씨에 몸도 가렵고 눈도 가려워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수두로 힘들어할 때가 시험 기간이라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봐야 했어요. 시험 보는 당일에 모자랑 선글라스를 쓰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다른 교실에서 혼자 시험을 봤어요. 그날 총 4~5과목 정도를 봤는데, 세 과목을 치르고 나서부터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날씨는 너무 덥고 문제들은 다 영어인데 모르는 단어들도 많고 몸은 간지럽고 땀은 나고 정말 최악의 컨디션이었죠. 그날은 정말 힘들었지만 수두가 빨리 나아지기만을 바라서 약도 제시간에 먹고, 잠을 잘 때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굽을까 봐 손을 묶어놓고 자기도 했답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수두는 며칠 안 되어 가라앉았고, 시험 성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지내던 우리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역지였던 꼬혈뿔은 어린 저와 제 동생이 계속 살기엔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날씨가 너무나 더운 데다가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희가 다녔던 학교는 그 지역에서 괜찮은 편이었지만, 건물 한 동에서 1,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바글바글 모여 수업을 했어요. 게다가 저희는 콩나물시루처럼 35인승 스쿨버스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과 함께 타고 다녀야 했어요.

부모님은 저희를 수도인 카트만두에 살고 계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덕에 서 지내며 학업 하도록 결정하셨어요. 부모님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리신 결정이라 저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싫었지만, 차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하필이면 카트만두로 떠나는 날이 저의 생일이었어요.

저는 제 생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했고 이별이 두려워 생일이 오지 않기를, 시간이 조금만 천천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시간은 자비롭지 않았어요. 눈을 떠보니 미역국을 먹고 있었고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많은 손님들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교인들, 친구들, 윗집, 옆집, 동네 사람들……. 다들 저희를 보러 와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선물도 주셨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엄마는 요리하느라 바쁘셔서 이모들이랑 부엌에서 잘 나오지 않으셨고, 아빠는 교회 목사님들과 사역 얘기만 계속하시고, 동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안 좋아해서 방에서 꿈쩍도 안 했어요. 다 같이 시간을 보내도 부족한데 같은 지붕 아래 있어도 같이 있지 않으니깐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결국 저는 마음 아픈 걸 참는 데 한계가 와서, 혼자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운 거 티 나면 부모님 마음도 무거워지고 손님들께도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세수하고 나왔어요. 확실히 한 번 울고 나오니까 속은 시원했어요.

저녁에 나이트 버스를 타고 거의 20시간 동안 꼬혈뿔에서 카트만두까지 이동해서 카트만두의 외갓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다음 날은 네팔주일인 토요일, 교회 가는 날이어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부모님과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요, 떨어지기 싫어요.’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죠.

제가 이렇게 투정을 부린 탓이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의자가 흔들리며 진동을 느꼈어요. 눈을 떠보니 교인들이 ‘지진이다!’를 외치며

허둥지둥하고 있었어요. 진동이 점점 강해지자 엄마랑 아빠가 저희를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가 예배드리던 곳이 2층이었는데, 진동이 너무 강해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벽에 걸려 있던 달력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더니 천장에 있던 장식들이 휘면서 진동이 위아래 좌우로 흔들리는 게 몸에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겁에 질린 교인들의 신음과 주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창문 밖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차들의 경적 소리..... 저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무섭고 기가 막혀서 정신이 나갈 정도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모두 한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지진이 어느새 멈췄어요. 저는 살면서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게 느낀 것이 처음이었어요.

일단 우리 가족은 여진이 오기 전에 어찌어찌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벽에 금이 크게 나 있었고 집 안에 있던 물품들이나 가구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여진은 계속 일어났어요. 집이 폭삭 무너질까 봐 집 앞의 공터에 쌓가마니 같은 포대 몇 개로 천막을 만들어 비를 막고 잘 곳을 마련하고 며칠간 그렇게 지냈어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 저희를 카트만두에 두고 꼬혈빨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지진 때문에 저희 남매도 겁에 질려 있었고 도로도 망가지고 버스 운행도 안 되어서 며칠 저희랑 함께 지내셨어요. 꼬혈빨에는 피해가

별로 없어서 여기 잠잠해지면 천천히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꼬혈뿔에 계셨던 FA(청년단기선교사) 언니오빠들이 그곳도 지진이 와서 무섭다며 선교사님 빨리 와 달라고 했어요. 부모님은 FA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어서 사역지로 가셔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저는 가겠다는 부모님을 붙잡고 싶었어요. ‘나도 너무 힘들고 무서운데.’ 온갖 이유를 대서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근데 떠나시는 그날까지 저는 가지 말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님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이시니까. 헤어지는 날에도 울지 않고 씩씩한 모습으로 떠나보냈어요. 그래도 마음 아프고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때 선교사님 자녀로 살기 참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경험들을 하고 이별도 하고…….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하니까 가장 원망스러운 건 하나님이었어요. 누구보다 우릴 사랑하신다면, 힘들 때 도와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나도 하나님 딸인데 나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내 말은 안 들어주시는 것만 같아서 서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난도 시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은혜롭고 축복된 시간들도 많았는데, 제가 그런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한 것이지요. 내게 힘주시는 분도 시련 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믿음도 조금씩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덧 우리 가족이 함께 한국에서 지낸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네팔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지난 4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시간이었나 싶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네팔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당시에는 저에게 버거웠지만, 지금은 큰 힘이 되어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힘들 때 제 자신에게 ‘넌 지진도 버티고 꼬혈뿔의 엄청난 더위와 먼지폭풍도 잘 버틴 아이야’ 이러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요.

제가 겪고 느꼈던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용감하게 만들었고, 그 모든 일 뒤엔 항상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알기에 저는 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MK로서 지냈던 네팔과 한국에서의 경험과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고등학교 생활도 긍정적이고 힘차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편지

국내 조경근, 브린다 선교사

사랑하는 폴린아,

아빠와 엄마는 어젯밤에 폴린이가 쓴 글을 읽고 많이 울었다. 어린 나이에 선교지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은 너희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더구나. 지금 돌아보니 아빠는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너희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빠가 사역 때문에 너희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줄 수 있겠니?

특히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던 너희를 카트만두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 맡기고 4년 동안이나 떨어져서 지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하구나. 우리는 어린 너희들이 지내기에 꼬혈뿔이 힘들고 현지 학교도 너무 열악해 보였어. 무엇보다 매일 사역으로 바빠서 어두워질 때까지 어린 너희들만 집에 있는 상황이 반복되며,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너희에게 두고두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2015년에 가족 모두 카트만두에서 대지진을 겪고, 며칠 후 여진이 계속 일어나는 중에 너희들만 카트만두에 두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야 할 때는 아

빠도 정말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어. 그날 밤에 동생 폴슨이도 많이 울었다면서. 폴린이 너도 열 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는데, 너보다 더 어린 동생 돌봐주며 네팔 할아버지 할머니와 잘 지내줘서 정말 고맙다.

2017년에는 사역을 마치고 네팔 동부에서 국내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와 엄마가 탔던 프로펠러 비행기가 돌풍을 만나서 추락할 뻔한 적이 있었어. 아빠는 그때가 지진 났을 때보다 더 무서웠어. 지진은 어떻게든 피할 수도 있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도망갈 수도 없잖아? 그때 롤러코스터처럼 급상승과 급강하를 반복하는 비행기에서 엄마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더라. ‘주님,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보나요? 아이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엄마는 지진 이후에 너희와 헤어졌던 기억과 그 후의 비행기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이제 절대로 너희들과 떨어져서 지내지 않겠다고 한다. 그 생각은 아빠도 마찬가지야. 우리 앞으로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지내자!

아빠는 이번에 폴린이가 쓴 글을 읽으며, 네팔에서 힘들었던 기억을 하나 하나 담담하게 풀어가는데 정말 놀랐어. 우리 딸이 이렇게 글도 잘 쓰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성장했구나. ‘우리 폴린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과거의 힘들고 슬펐던 일들을 감사의 고백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폴린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폴린이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를 따라갔던 선교지 네팔에서 힘들고 외로운 경험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강하고 성숙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폴린이가 한국의 아이들처럼 안정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지만, 아빠 엄마의 사역과 선교지의 사람들을 보며, 어려운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폴린이의 꿈과 계획 위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해주세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예수님 닮은 폴린이가 되게해주세요.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

질문이 있어요 ?

- ◎ 저는 왜 필리핀까지 가서 공부해야 할까요?
- ◎ 하나님께서는 왜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이 아니라 피아노를 시키셨을까요?
- ◎ 사람들은 왜 제가 일본에서 사는 것을 부러워할까요?



일본 · 이봄(16세)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저의 부모님에게 일본에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신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저를 잘 돌봐주셨고 돌봐주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것 같고, 이제부터도 더 그렇게 느끼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사는 고등학교 1학년, 열여섯 살 이봄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 때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 그리고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을 써 보려 합니다.

일본에 살아서 안 좋았던 점은 일본 현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작은 초등학교에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교회에서 했던 작은 학교라 친구도 정말 적었고, 아빠가 거의 모든 과목을 가르쳐주셔서 별로 학교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교처럼 운동부 활동 같은 것도 없어서 태권도도 배우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태권도를 배우지 못해 아쉬웠던 이유는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부러웠고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태권도 꼭 배웠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교회에서 작은 학교에 다닐 때 온누리교회에서 어떤 자매님이 단기 선교로 일본에 와주셔서 1년 동안 선생님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한국어와 문화도 배울 수 있었고 또 다른 많은 것도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와 오빠, 동생이 학생의 거의 반이어서 별로 학교 같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시니 조금이나마 학교 같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낯선 나라에 오셔서 1년이나 헌신해주신 선생님이 참 존경스럽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참 감사합니다.

중학교는 거의 왕복 3시간 걸리는 학교를 일주일에 네 번씩 다녀야 해서 그만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부터인가 교회 예배 때 피아노를 치게 됐는데 가끔은 피아노를 치는 게 정말 귀찮고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을, 특히 처음 피아노 반주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일주일 내내 피아노 연습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좀 더 쉽고, 귀찮은 건 마찬가지로지만 연습도 조금 줄었기 때문에 처음처럼 막 싫고 귀찮은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 한국에서 사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가끔 일본 교회에 온 단기 선교팀을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단기 선교팀 덕분에 좋은 곳도 많이 갈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만 살아서

한국 사람들, 아이들, 그리고 문화를 전혀 모르는 저에게는 선교팀이 올 때마다 참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 필리핀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해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학교에서 나와야 했을 때, 일본이 입국을 금지하여 한국에서 3개월을 살며 사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거의 다 해보고 일본으로 오니 일본에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거 같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에 다시 돌아와서 오랜 만에 교회에서 피아노를 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귀찮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필리핀 학교는 한국어와 영어로 공부하는 한국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한국어 선생님들은 모두 장기 선교사 또는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에 가서 선교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학교를 가보니 (거의 계속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보통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한국 교과서로 공부해서 새롭고 좋았고, 한국 아이들이 어떤지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필리핀 학교로 가면 뭐를 할지 어떤 학교생활을 할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필리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참 이 학교가 가기 싫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가서 저 혼자 3년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공부하는 학교로 가기 위해 이렇게 필리핀까지 가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학교

에 가기 전에는 ‘내가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런 나라에까지 가서 공부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필리핀 학교에 가 보니 생각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에 살아서 좋았던 점은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과 일본에서 좋은 친구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한국에 사는 아이들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 살아야 해서 싫었던 적도 조금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넌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 그 말씀들이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본어, 한국어, 영어를 배울 수 있었고, 한국에 사는 다른 또래보다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를 해서 참 좋겠다, 부럽다.’라고 하실 때마다 속으로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요?’라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언젠가는 셋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으로 저를 데려온 하나님과 부모님이 이해가 안 가고 어떨 때는 짜증 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저의 부모님에게 일본에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하신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저를 잘 돌봐주셨고 돌봐주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신 것 같고, 이제부터도 더 그렇게 느끼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편지

일본 이도현, 오은주 선교사

사랑하는 봄아!

우리 봄이 많이 컸구나. 봄이 초등학교 6년 기간을 아빠와 함께 이치카와 교회에서 몇 명 되지 않는 학교 환경에서 공부 할 때 많이 힘들었지! 그때 한국에서 오신 지선 선생님, 참 좋은 분이셨지. 봄이 선생님을 잘 따르고, 선생님 께서 봄과 학교의 학생들을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

그리고 중학교 3년 기간을 왕복 3시간의 전철 통학! 한번은 봄의 가방을 들어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 '이렇게 무거운 것을…….' 그리고 올해 시작된 고등학교는 멀리 필리핀의 선교사자녀학교에서 다니는구나. 어떻게 하면 선교지 일본에서 봄을 양육하여야 하나, 많이 고민하고 주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나갔단다. 열어주신 길들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기본적인 마음은 있었지만, 그 과정이 봄에게 당황스러움과 불편함 그리고 학창 시절의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갖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으니, 미안하다. 많이 미안하다.

교회에서 봄이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것이 무척 고맙고, 대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 중 하나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말할 수 있어 참 좋다.

한국에서 오시는 단기 선교팀의 언니, 오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함께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이다. 그분들이 오실 때는 참 좋고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갈 때가 참 힘들었다, 아빠도. “나도 한국 가고 싶은데.”라고 말하는 봄을 볼 때, 애써 그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아빠도 봄과 같은 마음이었어!

봄아! 힘들면 힘들다고, 짜증 나면 짜증 난다고,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 엄마 아빠가 봄을 일본으로 데리고 와서 봄은 많이 힘이 들었다고. 하나님도 부모님도 이해가 안 가고 짜증이 난다고 말해. 그러면 좋겠어. 지금은 괜찮고 앞으로는 더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봄의 모습이 보인다. 힘이 드는데, 그래도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봄의 태도가 보인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봄의 모습이 보인다. 봄이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에 봄이 참 대견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힘이 들면 힘들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짜증 날 때는 짜증이 난다고 말씀드리면 좋겠다. 항상 지금이 끝이 아니니까, 지금 꼭 이해하지 않고 지금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도, 지금 지치고 힘들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될 테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봄의 삶을 통해, 주위의 환경을 통해, 우리 봄 안의 복잡한 심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하나님! 봄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11)

질문이 있어요 ?

- ◎ 사람들이 생각하는 MK란 어떤 존재인가요?
- ◎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나요?
- ◎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부모님과 세상에 도움이 될까요?



우즈베키스탄 · 온유(14세)

MK로서의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아빠는 선교지에 가기로 결심하신 후, 저와 동생에게도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도 괜찮겠느냐고요. 그때 저희는 가자고 동의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선교지에 오게 된 것이 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 어리지 않은 나이에 선교지로 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조금 생각이 자랐을 때 갔다는 얘기죠. 아빠는 선교지에 가기로 결심하신 후, 저와 동생에게도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도 괜찮겠느냐고요. 그때 저희는 가자고 동의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선교지에 오게 된 것이 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맑은 공기, 깔끔한 도시, 별이 빛나는 하늘까지 무엇 하나 익숙한 게 없었지만 굉장히 설렘었고 선교지의 생활이 기대되었어요. 사실 선교지로 가는 것이 결정됐을 때는 걱정을 조금 하긴 있었지만 이런 걱정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짝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살던 집은 좁고 곰팡이도 있었는데 선교지의 집은

깔끔하고 한국의 집보다 더 넓었기 때문에 완전 행복했어요. (나중에 이 집이 엄청나게 바가지 씌운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게 저의 행복할 것 같은 선교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모님과 저희 자매는 현지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언어라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동생은 유치원을 다니니까 말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어 그나마 괜찮았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알아 들을 수 없는 말들, 난생처음 보는 글자, 눈이 큰 선생님들과 아이들까지. 다행히도 선생님과 좋은 아이들의 도움으로 차츰 적응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아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제 짝으로 붙여주신 아이는 제가 알려주는 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꼬집거나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드렸고, 엄마가 사전을 찾아가며 문장을 겨우 만들어서 짝을 바꿔 달라고 선생님께 부탁하셔서 다행히도 짝이 바뀌기도 했었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희는 선교지 물정(?)에 눈을 뜨고 월세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집주인이랑 협상해서 월세를 낮추려 했지만, 집주인이 워낙 고집이 센 덕분에 이사하게 되었죠. 이사하려고 짐을 다 싣는 날, 집주인은 난데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수박을 선물하며 가격을 낮춰줄 테니 이사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매우 싣는 가격에 좋은(?) 집을 구한 터라 집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지금 보면 정말 이사하길 잘한 것 같아요. 집도 넓은 데다 월세도 저희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제일 싸거든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이사를 하면서 저는 학교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정복한 터라(!) 이제 별문제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했죠.

그런데 새로운 선생님은 엄청나게 까다롭고 무서운 선생님이셨습니다. 저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으셨는지, 제가 하는 일에는 무조건 트집을 잡으셨어요. 시를 외우면(저희는 시를 많이 외우게 시켜요.) 한 글자 틀렸다면 낮은 점수를 주시고,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배경이 썰렁하다며 점수를 깎을 뿐만 아니라 저 빼고 다른 친구들에게 욕을 달고 사셨어요. (저는 한국인이라 욕까지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선교지에서는 한국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무슨 욕인지 별로 알려드리고 싶진 않는데 글로는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들으면 괜히 소름 끼칠 수 있는 욕입니다. 혀를 뱉어버린다니, 뭐 이런 비슷한 욕이에요. 근데 현지어로 그 발음을 들으면 자세히는 못 알아들어도 욕이라는 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발음이 꽤 무섭게 들리거든요.

그 선생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고, 매일 울면서 전학 가게 해달라고 엄마를 졸랐어요. 엄마도 학교를 알아보셨지만, 갈 만한 데가 없어서 매일 기도만 했어요. 편지 쓸 때도 이것을 기도제목 중에 항상 빼먹지 않고 썼죠. 제 기도제목을 보신 많은 분의 기도 덕분에 그 선생님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임신을 하셔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학교를 그만두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글을 통해서 그때 같이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교지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느끼는 기도의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MK로 있기에 이런 것들을 더 느끼고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 따라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MK로서의 삶은 행복한 삶이에요. 제가 MK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의 기도편지

우즈베키스탄 믿음, 언약 선교사

사랑하는 온유에게

우리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무질서하게 진행되는 입국심사 모습.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 앞에서 여러 차례 거리낌 없이 새치기 하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었고, 덕분에 심사가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 모두가 지치기도 했었지. 카트를 사용하려면 현지 동전이 필요했는데 공항 환전소가 문을 닫아 난감했는데 현지인이 현지 돈으로 친절하게 환전해주기도 했고. 짐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너희에게 공항 한 편에 앉아 기다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외국인 아저씨들이 쳐다봐서 무섭다고 하기도 했었지. 하룻밤을 낯선 호텔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최종 정착지인 지방으로 가기 위해 한참을 이동하는데 우리나라와는 다른 민둥산들과 초원, 양 떼들을 보니 평온한 마음이 들었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던 그곳이 이제는 익숙한 우리의 집이 되었네.

온 지 며칠 안 되서 바로 예수님 생일이었는데 무언가 허전하더구나. 이곳도 동네 곳곳에 큰 트리를 장식해놓긴 했지만 그건 크리스마스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송구영신 의미의 장식이었더라.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서 예수님 생일 축하하고 손 모았던 기억이 나네.

어린 나이였지만 타국으로 이주해 사는 것에 대한 너희의 동의도 있어 이곳에서 함께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 처음 너희를 학교에 보냈을 때 엄마 생각엔 좀 적응을 하고 보낸다고 생각해서 삼 개월 정도 후에 학교에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현지 언어를 배운 후에 보냈다면 덜 힘들었을 텐데 미안한 마음이 든다.

현지 학교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학교 가기 싫어하는 너를 어르고 달래가며 학교에 넣어놓고는 엄마도 사실 많이 걱정을 하긴 했단다. 그래서 계속 손 모으며 그렇게 지냈었지. 그런데 막상 학부모 모임에 엄마가 가보니 너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겠더라. 다들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모두가 이방인인 나를 쳐다보는데 그 호기심어린 시선에 어른인 엄마도 어딘가 쥐구멍이라도 있었다면 숨고 싶더라. 아직은 현지어가 불가능한 상태라 누군가 영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 물어봤더니 다들 모른다고 외면하고, 잠깐이었지만 네가 얼마나 학교 가는 게 힘이 들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 그래서 괜히 학교 가기 싫어하는 너에게 학교 가는 것을 강요하고 때로는 화를 내면서 보냈던 모습이 떠올라 미안해지더구나.

엄마도 그때는 초기라 현지어가 부족해 날마다 옆집 이웃들에게 돌아가면서 네 학교 숙제를 물어보고 도움을 받고 우리 다 같이 고생을 많이 했었지. 하루는 또 숙제를 물어보러 이웃집에 갔는데 우리가 하도 많이 와서 귀찮아서였는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아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어. 언젠가는 네 친구가 준비물을 알려주겠다고 우리 집에 와서 얘기해줬을 때 엄마는 그 말을 잘

못 알아 들어서 너희가 목화밭에 가는 줄 알고 가벼운 복장으로 학교를 보냈다
다가 당황했던 사건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웃으며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쉽지 않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뛰어넘어
잘 적응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사 와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했을 때도 그 선생
님 때문에 있었던 많은 일들 때문에 네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주었구
나. 엄마 아빠도 늘 너희를 위해 기도했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
에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엄마가 다른 친구 엄마들처럼 선생님에게 촌지를 건
넬 수는 없었으니까.

지금도 늘 느끼지만 네가 늘 열심히 노력하고 의젓하게 동생을 도와주는
모습도 보여주어서 엄마 아빠는 네가 참 대견하고 고맙다. 또한 너도 예수님
을 더 알아가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구나. 네 키가 자라나듯이
날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고 축복
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감비아_ 이라엘(23세)



스리랑카_ 정은송(13세)



미국_ 정찬희(21세)



미국_ 정소명(15세)



국내_ 김소망(10세)



방글라데시_ 유민음(11세)



방글라데시_ 유사랑(13세)

소망을 품고
마주 보다

질문이 있어요 ?

- ◎ MK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데 정말인가요?
- ◎ 선교사님들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갖는 걸까요?
- ◎ 선교사님들은 꼭 후원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요?



감비아 · 이라엘(23세)

하나님은 나의 편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기에 꼭 나의 꿈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MK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스물세 살입니다. 부모님께서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주셨는데 딸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이름으로 착각을 해 주변의 어른들이 여성스러운 이름을 지어보는 것이 어떡냐 하셔서 기도하며 이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라는 뜻을 지닌 ‘라엘’이라는 이름을 예명으로 부르게 되어 요즘은 ‘이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에 다녔던 학교와 선교지에서 생긴 저의 꿈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3년도에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3학년 나이 열여섯 살이었고, 제가 다닌 학교는 인도 북동부 지역의 깔림퐁에 위치한 ‘Dr. Graham’s

Homes' 였습니다. 닥터 그레함스 홈즈 학교는 1900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고아원으로 처음 시작하여 지금의 학교로 발전된 산속에 있는 현지 학교입니다. 맨 처음 학교를 봤을 때 외관이 영화에 나오는 마법학교 같은 분위기여서 무척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넓어 학교의 보건실을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갈 수 있었으며, 학교 매점도 두 곳이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운동장은 저학년과 고학년 운동장으로 나뉘어 있어서 편리했으며, 점심 식사 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 겸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있어서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짜증 등을 맘껏 쏟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지 학교이지만 기독교 학교이다 보니 채플(예배)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언덕 위에 자리한 100년 넘은 교회라 유럽에서나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아름답고 신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는 인도 현지 학교이고, 또 오래된 학교입니다. 화장실은 교실 건물 밖에 있어서 조금 걸어가야 하고 낡은 건물에 낡은 책상, 세 명씩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 긴 의자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인도에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서 여는 아침 조회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와 교내 목사님의 짧은 말씀과 축도를 듣고 인도 국가를 부르고 난 뒤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해서인지 학생들도 선생님께 순종적이었고, 선생님들도 인격적인 선

생님이 많았습니다. 인도에서 이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으며, 저를 도와주고 이해해주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 정말 즐겁고 편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힌두어를 쓰지 않고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인도에 간 지 한 달 만에 영어로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부턴 영어 수업이 일주일에 2회 생겼고, 4학년부턴 선교지 나갈 때까지 학습지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더 지나고 나서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성인이 되고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아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 친구들에게 현지 언어도 많이 배웠고, 네팔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을 통해 네팔어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인도에 갈 일이 생긴다면 제가 다녔던 ‘Dr. Graham’s Homes’에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추억이 많은 학교입니다.

인도에서 제가 사귀 친구들은 저를 끊임없이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낮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먼저 다가와서 영어 실력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하나 물어보고 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느끼면 먼저 와서 설명해주었습니다. 또 성적이 올랐을 때 모든 선생님들은 웃으면서 축하하고 격려해주셨고, 결

과가 안 좋아도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다며 위로해주셨고,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까 봐 학교에 있는 상담 선생님도 연결해주셔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하면서 생긴 꿈은 심리상담사입니다. 인격적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인도에 있는 몇몇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 중에 가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과 말들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니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에서 심리학에 관한 글과 책들을 검색하고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읽어보니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었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보면 안 좋은 점들만 보게 되었는데 ‘심리상담사’라는 꿈을 품고 보니 사람들의 안 좋은 점들도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었고, 또 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도 학교에서의 좋은 경험 덕분에 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된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사를 꿈꾸면서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 어디를 가야 할까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검색

을 하는데 딱 눈에 들어온 학과가 동물 매개 심리 치료학이었습니다. 동물을 매개체로 사람을 상담하는 것인데 참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인도에서 학업을 다 마치지 않았기에 혼자 한국에 들어와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드디어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복지 쪽으로 눈을 돌려 다른 대학에서 아동복지학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어려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또 저의 한 가지 목표는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막 스무 살이 되고 세상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하는 대학생 MK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20세 이후의 대학생 MK들을 위한 케어나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조금 서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방향하는 대학생도 많고 스무 살이라는 나이가 되었다고 다 큰 것이 아닌데 대부분의 선교사역 중에서 MK케어는 나이 제한이 있어 딱 19세까지이거나 그 이하였고, MK 대상 캠프가 있어도 대학생 MK는 오직 자원봉사자로만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 혼자 들어와 보니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생 MK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열고 싶었습니다. 언젠든 와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담소를 열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이 어두운 길목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하

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글로는 말할 수 없지만 방향을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며 지낸 저 같은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사실은 주변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일찍 성숙해 버린 탓에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선뜻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기도 합니다. 제가 혼자 한국에서 생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선교지에서 만났던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오셨던 분들 그리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연락을 주셔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용돈도 가끔 주시기도 하지만 정작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네가 잘하고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공부나 많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기에 꼭 나의 꿈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MK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MK들이 꿈을 이루고, 행복해할 날을 꿈꾸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편지

감비아 보아스, 나오미 선교사

나의 사랑하는 딸 라엘아!

너의 글을 읽고 편지를 쓰려니 눈물이 쏟아져 무엇을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다. 먼저는 너에게 사과부터 하고 싶다. 가장 예민할 나이에 너를 데리고 선교지에 나가고, 또 네가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 하여 한국에 홀로 보내게 한 것 등. 비록 너와 기도하며 결정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예민할 시기에 너를 두 번씩이나 외로움 가운데 밀어 넣은 것 같아 미안하다.

인도에서 비자발적인 철수를 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만 미안해하셔도 돼요!”라고 했지만,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구나. 지금도 한국에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너를 지켜보며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다. 요게벳의 기도처럼 그분께 너를 매일매일 맡기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가 인도에 첫발을 딛고 깔림퐁이라는 산간지역에 올라가 집을 정하고, 학교를 정하며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생각난다. 학교를 정하고 입학 상담하던

날, 너의 영어 실력이 안 되어 영어 기초반(ESL)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학교는 ESL반이 없기 때문에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을 때 네가 운동장에서 우리에게 울면서 말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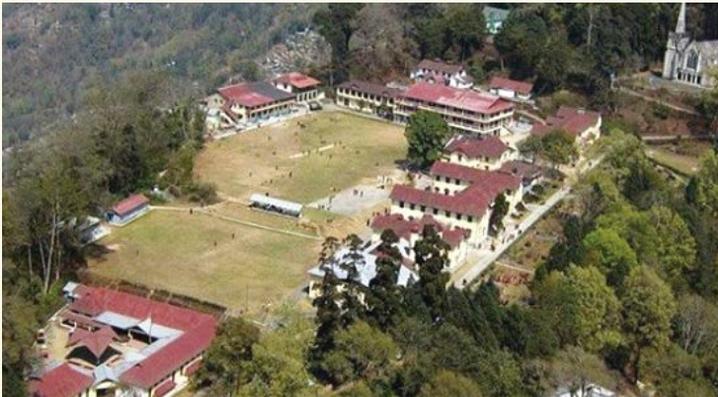
결국 우리 딸이 해냈지. 한 달 만에 언어가 열리고, 클라리넷으로 밴드부에 들어가 마칭(marching)도 하고, 종이접기로 교내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인기짱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10여 명의 친구들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새벽나라』로 큐티를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었지. 그 시간을 통해 선생님들의 기도 모임도 생기게 되고. 그러고 보니 우리 딸이 큰일을 했네. 그때 만났던 너의 친구들과 지금까지 우리가 카톡으로 연락하는 거 알지? “어머니, 아저씨!” 하며 쫓아다녔던 ‘너의 인도 깔림퐁 친구’들이 보고 싶구나.

라엘아! 어릴 때부터 부모의 직업 때문에 이사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에게 양보도 해야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빼앗기며 살았던 그 시절의 아픔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족히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너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상답’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너를 격려하고 축복한다.

너의 글 속에 MK들은 너무 일찍 철이 들어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다고 했던 글귀가 떠오르는구나. 맞아, 맞는 말이다. 그렇기에 사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란다. 너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네가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 길이 너에게 주어진 주님의 계획이라면 기쁘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길 축복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딸 라엘이에게 어떤 말씀으로 격려를 할까 생각하다 어제 너에게 음성으로 남긴 시편 27편 4절 말씀으로 이 편지를 맺을까 해.

“라엘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라엘이가 라엘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질문이 있어요 ?

- ◎ 우리는 언제까지 스리랑카에 있어야 하나요?
- ◎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어요?
- ◎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코로나'라고 부르나요?



스리랑카 · 정은송(13세)

주의 사랑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스리랑카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친구들과 선생님, 친척들과 헤어져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스리랑카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스리랑카는 어떤 곳일까 상상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더운 곳이라고 해서 사막과 같은 곳일까 생각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콜롬보에 도착했고, 처음에는 온누리 국제학교 안에 있는 방에서 지냈습니다. 학교 안에 수영장이 있어서 자주 가서 수영하면서 놀았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지냈지만 한국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가끔씩 유니폼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서 ‘나도 저렇게 유니폼을 입고 학교에 가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뱀을 타고 와우니아로 왔습니다. 와우니아는 수도 콜롬보에서 5시간 걸렸는데, 오는 동안 덥고 멀미가 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

착한 곳은 한국 집과는 많이 다른 집이었어요. 이제부터 이곳에서 사는 것이라고 아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학교에 가지 않고 몇 개월 쉬다가 학교에 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어, 타밀어, 싱할러 세 가지 언어를 학교에서 꼭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3학년에 가야 하는데 세 가지 언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1학년에 들어가서 두 살 어린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도 잘 몰랐거든요. 이곳에는 한국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서 한동안은 한국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친구들과 미끄럼틀도 타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재미있게 지냈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곳은 제가 다녔던 한국 학교와 너무 달랐습니다. 학교가 작고 책을 둘 곳이 없어서 무거운 책가방을 날마다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양변기가 아닌 좌변기여서 불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아파트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쉽게 걸어 다녔는데, 이곳에서는 아빠가 아침에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고 끝나면 오토바이로 데리러 왔습니다.

학교에 들어갔는데 한동안은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가져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하면 선생님이 긴 회초리로 아이들 손

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장난치는 아이들의 등을 세게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도 맞으면 어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저의 볼을 꼬집기도 하고 저의 물건을 던지며 장난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아침 7시 20분에 학교에 도착해서 10시 30분에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십니다. 그런데 간식을 먹었는데도 오후 12시가 넘어가면 너무 배가 고파 힘들었어요. 제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수업은 오후 1시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참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2시가 되는데 그때야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저의 배꼽시계도 이곳의 시간에 적응이 되어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운동회 날인데 운동회 날인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다 색깔에 맞추어 운동복을 입고 왔는데 저만 학교 유니폼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엄마에게 연락해서 엄마가 운동복을 사와서 운동장 한쪽에서 갈아입고 운동회에 참여했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서 계속 운동을 해서 눈이 부시고 따가워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다 운동회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 접하는 학교생활은 이렇게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학교에서 있었던 힘든 이야기를 나누

고 또 예배를 드리며 많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조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참고 이겨내니 어느덧 학교생활에 적응이 되고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지금은 선생님과 반 친구들에게 저의 생각을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반 친구들로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교실 게시판에 저의 그림을 붙이고 선생님의 부탁을 받아 교실을 꾸미는 일도 하곤 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는데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때 힘든지 기쁜지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만화가, 그리고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어요. 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꼬마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편지

스리랑카 정하교, 함주향 선교사

사랑하는 딸 은송아!

우리 가족이 스리랑카 와우니아에서 살아간 지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렀구나. 시간이 참 빠르네. 이곳의 초등 과정을 끝내고 이제 중학교 과정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은송이가 참 대견하단다.

은송이가 쓴 글을 읽으며 처음 이곳에 왔을 때 한동안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힘들어하던 모습이 생각한다. 특히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친구 채은이와 친하게 지내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빠와 엄마를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되어 친구가 많이 그리웠겠다 생각이 든다. 스리랑카로 오기 전날도 생각한다. 그때 마지막 짐 정리를 하느라 엄마 아빠가 바빠서 너는 어린 동생들과 고모 댁에 있었지. 아빠와 엄마가 집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채은이가 찾아왔어. 은송이가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서 얼굴 보고 싶어 왔다고, 그리고 예쁘게 쓴 손 편지를 은송이에게 꼭 전해 달라고 했어. 한참 서 있던 친구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친구도 너도 마음이 무척 서운했겠다.

처음 이곳에 와서 우리 은송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송이가 쓴 글을 읽으며 많이 힘들었을 너의 마음이 느껴진다. 사실 표현을 못 했지만 힘들어하는 은송이를 보면서 엄마도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다.

은송아! 힘들어도 꼭꼭 참고 학교에 잘 다녀주어서 고마워. 이곳에는 친한 친구도 없고 이야기 나눌 한국 친구들도 없지만 엄마 아빠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이해해주어서 고마워.

은송이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생겨난 꿈을 아빠 엄마는 항상 응원해.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 믿어. 그리고 우리 은송이에게 신실한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

「야곱의 축복」 노래 좋아하지?

네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처럼 우리 가족 모두는 항상 은송이를 축복하고 응원해.

너는 담장 넘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5)

질문이 있어요 ?

- ◎ 선교사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무엇인지요?
- ◎ 만약 선교사 가정이 아니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 ◎ 선교사의 자녀로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미국 · 정찬희(21세)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시도록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삶은 항상 두 문화 사이에서 당겨지는 줄다리기 밧줄과 같았습니다. 2016년 여름 저는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했지만, 그 시간은 제가 정말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와이 카이루아코나의 YWAM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신 부모님을 따라 세 살 때 하와이로 이주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17년간 지내면서 미국 문화에 빠져들어 점점 한국 문화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하며 우리 문화와 영적인 뿌리를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여름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 특유의 판단하는 문화와 절대적인 미의 기준에 제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든 뽀얀 피

부를 가진 늘씬한 모델을 내세운 간판들이 있었는데, 그와 달리 하와이의 태양에 그을린 피부에 키가 작은 저를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너무도 미국적인 사람이었고, 하와이에서는 또 지극히 한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대부분을 하와이에서 보냈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가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가 미국 문화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혀 다른 두 문화의 기준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저는 두 문화를 오락가락 하며 양쪽 모두를 충족하기 위해 제 행동을 바꾸어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미의 기준이 제 자신감을 정말 낮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잃게 되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저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뇌의 시간을 지나며 저는 제가 하나님 자녀 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문화로 인해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으로서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감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적과 출신 이전에 항상 제 영과 육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방문은 가족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제 삶의 목적을 따라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시도록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 여행 이후 하와이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이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기 정체성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더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전에 제 주위에 있던 몇몇 친구를 잃기도 했지만 진정한 친구는 저의 가장 연약한 모습과 세상에서 이를 수 없는 꿈, 혼란스러운 생각에도 불구하고 저를 언제나 사랑해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제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제 목적이 부모님께서 10년 이상 해오신 YWAM 사역과 맞닿아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부모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명절에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를 돕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사역에 참가하고 자원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 찬 도시들에 빛을 전하기 위해 10여 개국으로 아웃리치를 갔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선교를 갈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어 아쉬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등학교에서 National Honors Society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의 의사결정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계획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해주던 후배 중 한 명이 제게 대학 진학과 지원에 대한 도움을 청했고, 현재 그 후배는 꿈에 그리던 대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작은 도움이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욱 헌신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헌신하니 제 삶에 가장 중요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자녀인 저에게 학비 부담으로 생각지 못했던 미국 대학 진학의 문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제 염려는 모두 사라졌고, 제 스토리를 들은 Bryn Mawr 대학에서 제게 장학금과 그 이외의 비용을 충당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언어학과 교육을 전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제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삶의 목적을 찾는 동안 희생하고, 벽을 넘고,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주님과 더 강한 관계, 자기애, 그리고 그와 함께 찾아온 멋진 일들의 아름다움을 위해 지불한 작은 대가였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

- ◎ 한국의 무엇이 가장 그리운가요?
- ◎ 목회자로서의 일상은 어땠나요?
- ◎ 하와이로 이사 가며 한국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미국 · 정소명(15세)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꿈



전 항상 하나님에게 다가갔어요. “하나님, 지금 절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고 항상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하와이는 섬입니다. 익사는 해마다 전 세계 30만 명의 인명을 빼앗는 사망 원인 3위여서 특히 하와이 주민들에게 수영은 꼭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제가 여섯 살이 되던 해 아빠께서 저에게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려고 수영을 배우도록 권하셨습니다. 여섯 살 때 제 첫 수영 강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십자가 코나 지역 수영장에서 어린이를 위한 기초 수영 수업을 제공하자 엄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여겨 저를 그 프로그램에 등록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수영장에 도착하기만 하면 두려운 나머지 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여러 차례 수업에 출석하며 물이 더는 두렵지 않고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하루 저를 지도하시던 코치님이 엄마에게 수영을 본격적으로 시켜보면 어떨지 제안하셨습니다. 가족들과 많은 고민 끝에 부모님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코나호누라는 초급 수영팀에 등록시켜주셨습니다. 이 팀에서 저는 다양

한 수영 영법을 배우고, 하와이 내 다른 초급 수영팀과 진행하는 시합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수영에 대한 제 열정을 확인하고, 저는 여덟 살이 되던 해 제 수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사설(private)팀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곳은 초급 팀과는 달랐습니다. 수영을 더 잘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쏠렸고, 저처럼 새로 온 선수들은 코치님의 인정과 관심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떤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는 한 코치님에게 훌륭한 수영 선수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날 코치님은 제 실력을 테스트하시고는 저를 기초반과 고급반 중 기초반에 넣어주셨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코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훈련하며 매일 코치님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5년 여름 저는 아홉 살에 처음으로 하와이주에서 진행되는 경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일정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겨루는 자리였기에 제게는 더 특별했습니다. 유경험자들과 치르는 첫 대회였기에 저는 매우 긴장했고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참가한 선수들에게 쏠려 있고, 만일 누군가가 실수해서 실격을 당하면 곧바로 모든 흥미를 잃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시합 중에 기록이 부진하면 '느린 선수'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경주를 마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경기를 치르면서 저는 수영을 배우는 것과 경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수영 선수로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고, 선교사 자녀로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2015년 시합 이후 저는 하와이주 모든 수영 대회에 출전하며 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19년 여름 마우이에서 치른 대회는 제게 더 특별합니다. 개인 200 LCM 평영에서 저의 최고 기록을 깨고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해당 종목에서 빅 아일랜드에서 1위, 하와이주 전체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스트레스, 좌절감, 불안, 피로, 동기부여의 부족을 느끼는 어려운 시간도 많았습니다. 스트레스는 가장 힘든 걸림돌이 되었고 특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심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실격을 받았던 실수도 하였고, 기록 달성에 도움이 될 고가의 기능성 수영복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능성 수영복과 같은 도구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처음 진학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수영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했기에 학업보다는 운동에 집중하였고, 학업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영 기록을 더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 수상 경력을 알기에 제가 잘 해내기를 기대하고 있었습

니다. 고등학교 1학년(9학년) 학생으로는 유일하게 선배들과 팀을 꾸려 시합에 나간 저는 6주간 매주 토요일 다양한 경기에 출전하였고, 최종적으로 BIFF 챔피언십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 첫 시즌이었지만 저는 이 경기에서 100야드 평영 금메달 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저는 정말 성취감을 느꼈고, 지쳤지만 이틀 동안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챔피언십 경기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지며 연습도 시합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예전처럼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 집에서 실력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던 중에 이런 생각을 깨뜨리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3~7세 어린이들에게 수영 수업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도 보람되고, 저의 오랜 친구인 물과 다시 가까이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하와이에 살면서 이런 작은 꿈으로 수영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매일 아침 7시에 수영장 또는 바다에 나가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달란트를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다음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1부 리그 대학 수영팀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찬희, 소명아.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아빠가 생각지 못했던 찬희, 소명이의 적극성으로 인해 놀랐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구나.

찬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니 생각이 난다. 찬희가 대여섯 살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코나에 선교사로 도착한 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지. 샤워를 도와주다가, “아빠, 나는 미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태국 사람이야?” 이렇게 질문했어. 첫 2년을 이상하게도 태국으로 팀을 데리고 아웃리치를 많이 나갔더랬어. 일 년에 반은 코나에서, 반은 태국에서 살았지. 그러다 보니 그때는 찬희가 태국 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랬지.

아빠 엄마가 선교지에 안착하려고 일부러 한인교회도 안 나가고, 한국인 공동체에도 나가지 않아서 네가 더 혼란스러웠을 거 알아. 그래서 찬희가 쓴 글에 어느 날 보니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이더라는 말이 피부에 와닿는다.

아빠는 찬희는 찬희로 커주길 바라. 왜냐하면 찬희가 첫째여서 아빠한테 제일 엄하게 교육받고 컸잖아. 오늘 이 글을 쓰기 전에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찬희가 잘 커 주었고. 이제는 스무 살이 되었잖아. 이제는 아빠 엄마가 찬희를 믿어주면 되지. 아빠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찬희의 하나님이 되신다.

소명이는 수영 얘기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영을 거의 못 해서 오히려 아빠가 초조해질 때도 있다. 소명이가 수영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우리 가족이 수영 대회를 주말이면 많이 따라다녔는데, 정말이지 100분의 1초를 놓고 순위를 가르는 이 종목이 소명이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줬겠다 싶어. ‘그냥 그만, 너무 그렇게 지독하게 하지 말고 즐겨라.’ 이런 말이 아빠 입까지 나왔다가 들어가 버린 때가 많지. 소명이가 어릴 때, 영어 이름을 Joy라고 했던 적이 있잖아. 정말 우리 소명이는 제대로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반대로 튀어나오는 유머가 더 신선하고 강렬한 것 아닐까?

우리 소명이의 강점은 꾸밈이 없지.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도 소명이의 반응이 그날 분위기를 아주 많이 좌우해서 깔깔 웃게도 하고, 매우 지루하게 하기도 하지. 예쁘고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우리 세 딸과 엄마 아빠는 행복하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2)

질문이 있어요 ?

- ◎ 엄마 아빠는 왜 네팔에 왔어요?
- ◎ 우리 그냥 한국에서 살면 안 돼요?
- ◎ 하나님은 네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사랑하시죠?



국내 · 김소망(10세)

청년 선교사의 꿈



저는 아직 어리지만 네팔에 사는 동안 제가 되고 싶은 꿈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청년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온 3학년 김소망입니다. 우리 가족은 2015년 네팔에 대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쳐서 힘들어할 때 네팔에 갔습니다. 그리고 네팔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안식년을 맞아 2020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언니, 동생, 저 이렇게 다섯 명인데 모두 네팔 이름이 있습니다. 네팔어로 아빠는 어물려(값진), 엄마는 어누(은혜), 저는 아샤(소망), 언니는 마야(사랑), 남동생은 비스위스(믿음)입니다. 저는 그동안 네팔에서 살면서 재미있었던 것, 힘들었던 것, 그리고 제가 되고 싶은 것과 네팔 친구들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쓰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았던 네팔 중서부 지역의 꼬혈뿔은 네팔에서 아주 뜨겁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그 무더운 날씨 때문에 네팔에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정말 너무 더운데 전기가 들어오지

앉아서 선풍기도 돌릴 수 없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에서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일입니다.

꼬혈뿔은 날씨가 덥지만 다행히 우리가 살던 집은 좀 시원했습니다. 마을이 예쁘고, 네팔 음식들이 맛있었습니다. 시간은 한국보다 3시간 15분 더 느립니다. 네팔에도 교회가 있는데 주일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도 너무 좋았고, 특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간식을 줄 때나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도 있었는데 네팔 친구들과 어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언니들과 오빠들이랑 함께 마당에서 뛰놀 때도 있었고, 책을 읽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예쁘기도 하고, 언제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항상 춤과 노래를 즐기는 사람들이라서 네팔은 언제나 재미있는 곳으로 기억됩니다. 네팔에서 저녁에 옥상으로 올라가면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맛있었던 것은 네팔의 주식인 달밥과 특별한 날 먹는 치킨 카레 고기였습니다. 달밥은 네팔의 전통 음식으로 묽은 죽처럼 끓인 콩물을 밥에 섞어서 먹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골 마을에 심방을 가면 우리나라에서 먹는 찹쌀 호떡과 비슷하게 쌀가루를 납작하게 반죽해서 튀겨주는 음식이 있는데 네팔의 쩌우더리 부족만 먹는 음식이라 그 마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별미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쩌우더리 마을 삼촌이 밭에서 사탕수수를 잘라 껍질을 벗겨주신 것을 씹어 먹었는데 너무너무

달고 맛있었습니다.

네팔에서 정말 좋았던 날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호텔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집보다 덥지 않고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도 있는 호텔이 너무 좋아서입니다. 무엇보다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곳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때는 거기에서 단기 선교팀(FA)언니, 오빠들과 같이 마피아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놀다가 자고, 호텔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도 맛있었지만 호텔에서 먹는 음식이 참 맛있었습니다. 꼬혈 뿔 호텔에서 호텔 정원으로 나가면 작은 분수도 있었습니다. 분수는 밤에 보면 더 예쁩니다.

저희 부모님이 늘 바쁘셨지만 집에서 엄마 일을 도와주는 뿌스빠 이모가 있어서 힘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역하러 나가시고 집에 없으면 저희들 밥을 챙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네팔은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만 쉬는 날입니다. 우리 가족의 선교 지역인 네팔이 좋았습니다. 네팔이 좀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네팔에 사는 동안 제가 되고 싶은 꿈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청년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FA가 되어서 네팔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꼭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떼!



부모님의 기도편지

국내 김원, 소영주 선교사

천사 같은 딸 소망아!

소망이가 쓴 글을 읽고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고맙고 대견한 마음이 들었어. 처음 카트만두에 도착해서 너를 유치원에 보낼 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마음 아팠단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엄마를 소리쳐 부르며 울며 가기 싫다고 하는 너를 엄마가 매정하게 스쿨버스에 앉혀 떠밀 듯 억지로 유치원에 보냈었어. 그리고 나서 네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하루 종일 눈물로 기도했단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나 잘 적응을 하고 나중엔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낯선 아이들과 함께 전혀 모르는 네팔어와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도 재미있게 유치원을 잘 다녀주었고, 네팔 음식들도 너무 맛있게 먹어주었던 네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웠는지 몰라.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오히려 소망이가 엄마한테 네팔어 책을 줄줄 읽어주며 네팔어도 가르쳐줄 수준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따라다녔지.

카트만두에서 한국 친구들과 헤어져서 외국인들조차 거의 없는 시골 마을인 꼬혈뿔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도 엄마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하고 걱정했는데, 엄마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꼬혈뿔의 비포장 길을 마냥 신나게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었어. 오히려 엄마는 어떻게 그곳

에서 살아갈지 하루하루 긴장되는 시간들이었는데 늘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는 소망이의 에너지를 받아 엄마도 재미있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 택시라고는 한 대도 없는 그곳에서 양산을 쓰고 걸어 다니거나 리샤를 타고 시장을 보러 다녔는데 그런 소소한 일상이 이제 우리만의 작은 추억으로 쌓였구나. 밝게 웃고 네팔어로 인사하는 소망이를 데리고 길을 가면 엄마가 말을 걸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걸어주어서 전도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했던 거 같아. 아빠가 없을 땐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도 더 힘이 났었어. 어느 날 한 밤중에 모두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엄마가 화장실을 가려고 안방을 나가는데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집 부엌에서 우유를 먹고 도망가다가 엄마와 딱 마주쳐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런데 또 한 마리가 나와서 엄마가 더 놀라 소리를 지르는데 소망이가 달려와서 안아주었던 거 기억나니? 그리고 또 침대에서 자다가 무언가 소리가 나서 깬는데 엄청 큰 바퀴벌레 두 마리가 방에 들어와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데 소망이가 “엄마, 내가 잡아줄게요.” 하면서 백과사전으로 꼭 눌러 잡아주었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 사실 엄마가 엄청 무서워하는 뱀, 바퀴벌레, 쥐, 그리고 도마뱀 뭐 이런 것들을 소망이가 무서워하지 않아서 엄마가 오히려 소망이를 의지하고 일부러 더 데리고 다녔던 거 같아.

카트만두에서는 밤과 새벽 시간에 자주 찾아오는 여진으로 잠을 잘 못 잤는데, 꼬혈뿔로 이사 가서는 문짝이 날아가 버릴 정도로 세차게 부는 비바람 소리와 소리소문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동물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엄마를 잘 이해해준 소망이가 늘 곁에 있어서 참 든든했었어. 재작년 여름에 꼬혈뿔

에서 감기인 줄 알고 2주나 감기약을 먹었는데도 온 식구가 돌아가며 감기에 걸려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상한 심정으로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온 식구가 다 아프겠네요.’라고 하셔서 혈액검사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장티푸스였어. 온 가족이 전염병에 걸려도 의사 선생님조차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런 환경 속에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잡초처럼 강한 생명력을 갖게 하신 것 같아. 유치원 때 처음 네팔에 가서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소망이가 이제 정말 많이 컸구나 싶어.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준 소망이가 있었기에 엄마 아빠도 행복하게 선교지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워.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딸 소망이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네팔에서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낯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늘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용기 있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평생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요셉과 같이 형통함을 누리는 소망이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아이들보다 연약한 아이라 더 기도하게 하셨는데 어린아이이지만 누구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네팔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고 좋았던 기억들을 오래오래 간직하게 하시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17)

질문이 있어요 ?

- ◎ 엄마 아빠는 왜 선교사로 오기로 결정하셨어요?
- ◎ 종교심이 깊은 무슬림에게 전도를하기로 결정할 때 약간 떨리지 않으셨어요?
- ◎ 알고 지내던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화가 아주 많이 났던 적도 있으세요?



방글라데시 · 유사랑(13세)

사랑이의 집콕 생활



방글라데시에 코로나가 매우 심한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가족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7년 전인 일곱 살 때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한국 선생님들이 세우신 에벤에셀 학교에 다닙니다. 방글라데시, 한국, 인도, 중국, 나이지리아 사람 등 다른 나라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방글라데시에 잘 적응하게 됐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제가 처음 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오래되고 소중한 친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무슬림이시고, 방글라데시 친구들도 무슬림 친구들이 많아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3월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보고 싶고 학교가 정말 그리웁습니다. 저와 동생들이 모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노트북을 들고 서로 다

른 방에 가서 자리를 잡고 하루의 수업을 듣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잘 안 되면 선생님이 정지 화면 상태로 멈춰 계셔서 수업 내용을 한참 동안 듣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학교들은 대부분 온라인 수업 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사정이 어려워서 아예 문을 닫은 학교도 100개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공부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도록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성적을 보며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번 학기에 6학년으로 올라오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갈 수 없지만, 가족이 함께 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점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 원래보다는 일찍 끝나서 매일 엄마와 함께 말씀책을 읽고 성경일독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종종 친구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새로운 취미로 프랑스 자수와 십자수를 하며 집콕 생활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빨리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예전처럼

학교에서 친구들을 직접 만나 수다를 떨며 놀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진 후로 온 가족이 매일 집에서 생활하면서 엄마는 집안일 때문에 많이 바빠지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엄마가 집안일 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곤 합니다. 엄마를 도와드리면서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고생을 많이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코로나가 매우 심한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 가족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기도편지

방글라데시 유예녹, 서예스더 선교사

사랑하는 사랑아!

아빠는 사랑이가 쓴 글을 보며 기쁘기도 하고 또 조금 미안하기도 했단다. 사랑이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인터넷으로 프랑스 자수와 십자수를 배워서 예쁘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드는 것을 보며 너무나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랑이가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는데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지금, 아빠라도 좀 수다를 배워서 사랑이하고 아주 많이 수다를 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도 사랑이가 자수를 놓기 위해 실을 고르고 색깔을 선택할 때 아빠에게 자주 물어봐 주고 또 작품이 완성되면 바로바로 보여줘서 고맙고 또 엄청 신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오랫동안 자수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랑이의 끈기와 집중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아빠는 자수를 하라고 하면 5분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아! 눈이 나빠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꼭 가지기 바란다. 가뜰이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몸이 굳을 수 있는데,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침에 꼭 국민체조를 거르지 않고 함께 해야겠어. 아빠가 우리 가족이 함께 바람을 쐬 수 있는 시간과 장소들도 한번 알아볼게. 이전 사랑이가 거의 엄마만큼 키가 커서 점점 엄마와 친구처럼 지내게 되고, 또 엄마를 잘 도와줘서 고맙다. 가끔씩 선보이는 사랑이의 계란 프라이 요리도 최고! 사랑이도 나중에는

정말 뭘 만들어도 항상 맛있는 엄마처럼 최고의 요리사가 되는 걸까? 모르고 먹던 계란 프라이도 사랑이가 만들었다고 하면 더욱 맛있는 이유가 뭘까? 아빠는 사랑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단다. 가끔씩 티격태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나로서 예측불허의 믿음이 소망이와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 아빠는 하나님께서 아빠와 엄마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 너희들을 선물하셨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된단다.

이 말씀처럼, 늘 그리고 평생토록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나누며 섬기는, 그래서 세상이 다 없어져도 오히려 더욱 분명해지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사랑이가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 축복, 또 축복한다. 사랑한다, 사랑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13)

질문이 있어요 ?

- ◎ 엄마 아빠는 무엇이 제일 힘들고 언제 제일 기뻐요?
- ◎ 우리가 언제 제일 사랑스러웠어요?
- ◎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적이 있으세요?



방글라데시 · 유민음(11세)

믿음이의 꿈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다시 방글라데시에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의 방글라데시를 섬기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그동안 이곳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조금 어려웠습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사람이 엄청 많고 신호등이 없고 길이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너무 덥고 습하고 지저분했지만, 이제는 적응이 되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못 가게 됐습니다. 전에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1시간 동안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고 나서 혼자서 혹은 한국인 형들이랑 볼 리프팅을 했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볼 리프팅을 집에서 하는데, 제가 볼 리프팅을 할 때 동생 소망이도 발바닥으로 공을 굴리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집 공간이 좁아서 볼 리프팅 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니 적응이 잘 되어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67개를 할 수 있었

고, 점점 실력이 늘어서 마침내 337개를 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영표 선수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실력 있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빠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다시 방글라데시에 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의 방글라데시를 섬기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제가 느낀 방글라데시는 아무리 가난해도 웃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저에게 웃음을 많이 줍니다. 요즘은 아빠의 신학교 강의 준비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원래도 관심이 많았지만 요즘 더욱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아빠는 매주 목요일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밤을 쉰 때도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다카 외곽 지역에도 가고 다른 날에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바쁩니다. 요즘은 저도 4학년 시작하고 공부 때문에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동생 소망이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가 맨날 놀자고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놀고 싶지만 숙제와 시험이 많아서 소망이가 많이 심심해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강의 준비할 때 바쁘다는 걸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소망이랑 마음껏 같이 놀 수 있는 날들은 한 주의 수업이 끝나고 주말이 되는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놀고, 신나게 간식도 먹어서 좋습니다. 올해 방글라데시에서 제일 맛있

는 과일은 바로 잠부라입니다. 맛이 자몽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잠부라는 완전히 꿀맛입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KFC를 갈 수는 없지만 엄마가 해주는 프라이드치킨과 스파게티는 완전 짱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학교에 다시 가면 더욱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과 놀고 신나게 집콕을 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도편지

방글라데시 유예녹, 서에스더 선교사

믿음아!

아빠는 믿음이 쓴 글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믿음이 그런 꿈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새삼 너무나 기특하게 느껴진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꿈을 보시며, 믿음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주실 것을 믿는다. 하지만 네가 나중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는 이미 지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단다. 그것은 바로 너와 소망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지금도 진행 중인 ‘아기자기 실내 가족 리그’이지.

요즘 믿음이 아빠가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여줘서 고맙고 마음이 든든하단다. 그리고 어제는 조금 미안했다. 컴퓨터로 준비하던 강의 자료가 갑자기 날아가서 속이 상했는데, 믿음이 계속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데, 아빠도 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믿음이 네 할 일을 해라.”고 했었지. 금방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아빠는 그때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이 너무 귀찮았거든…….

아빠는 너희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통해 아빠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정말 많이 깨닫게 해주신단다. 무엇

보다 믿음에게 가장 고마운 것은 바로 이것이란다. 아빠가 강의 준비로 빠듯할 때 “믿음아, 아빠 따뜻한 차 한 잔 타줄 수 있니?”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말, “아빠, 왜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아빠는 그 한마디에 엄청난 힘이 난단다. 믿음이는 이미 지금 아빠의 동역자로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단다. 요즘 집에만 있고 온라인 수업으로 모든 것을 하니깐 조금 힘들지? 아빠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믿음이가 친구들과 학교에서 마음껏 축구를 하고 얼굴이 빨강게 달아오르고 땀에 흠뻑 젖어서 집으로 오는 그 멋진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기도할게!

우리 믿음이가 온 힘을 다해 축구를 하는 그 모습으로 평생토록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축복한다. 믿음아! 예수님 안에서 너는 어떤 어려움도 모두 이겨낼 것이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얻을 거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는 축구 에너지이제! 유 믿음! 파이팅!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1~2)



코트디부아르_ 김환(17세)



모리타니_ 시엘(19세)



몽골_ 김민서(16세)



영국_ 김다혜(14세), 김혜민(11세)



라오스_ 전유진(12세)



국내_ 한정원(19세)

사랑의 마음으로
마주 보다

질문이 있어요 ?

- ◎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거짓말하는 현지인들을 용서하시나요?
- ◎ 엄마 아빠는 선교를 위해 이곳에 보내셨는데 나는 이곳에 무엇을 위해 보내셨나요?
- ◎ 우리가 만일 선교를 오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잘살 수 있었을까요?



코트디부아르 · 김환(17세)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와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내 삶을 통해 쓰게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홉 살에 코트디부아르에 와서 9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내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다른 내전 가능성이 있어서 공항에서부터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데 무섭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첫 현지인 숙소에도착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여행이 끝났고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들어간 숙소는 내전 때문에 쓰지 않았는지 정말 더러웠고, 더웠고, 벌레가 엄청 많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여행을 빨리 마치고 한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이제 이 나라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하고 한국에는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숙소는 방이 한 개, 침대가 하나뿐이라 우리 네 가족은 그 침대 하나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해 그 집에서 떠나 다른 현지 게스트 하우스로 옮기기를 반복하다가 선교사님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리베라 골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비록 쥐와 바퀴벌레는 많았지만 잠시 머물던 현지 게스트 하우스에 비하면 너무나 좋은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동네에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살아서 함께 노는 것이 좋았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현지인 아이들과 축구를 하는 것도 좋긴 했지만 말이 잘 통하는 형들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빠와 형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사는 선교사님 자녀들과 함께 학교에 갔고 점심이 되면 집으로 다시 와서 밥을 먹고 다시 오후 수업을 하기 위해 학교로 갔습니다. 너무 덥고 습해 땀이 많이 나고 옷이 다 젖는 것도 힘들었지만 오갈 때마다 현지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우리를 ‘시누아’(중국인), ‘신티’(짜구려 불량 중국 제품-중국인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놀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이 창피하기도 했지만 화가 많이 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놀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학교에서 언어를 구사할 줄 몰라 너무 힘들었을 때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불어가 너무 어려워 한 학년 아래 친구들과 공부를 해도 도무지 못 알아듣고 쓰지도 못하니, 선생님이 유치원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내가 너무 커서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원래 교실로 가서 공부를 하던 중에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국어로 “선생님!” 하고 불렀는데 선생님은 불어로 알아들었던 것

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선생님이 불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어처럼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나에게 어려운 불어를 깨닫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상처가 되고 힘들어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씩 생각하면 내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됩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불어를 하나도 몰랐던 내가 일 년을 마치면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좋아지고 마지막 날에 사진을 찍으며 너무 기분이 좋았던 데다가 선생님도 나를 칭찬해주시니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시려고 힘든 시기를 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잘 적응했는데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학교를 세 번 전학하여 지금은 네 번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도둑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건이 자꾸 없어졌습니다. 친구들 것도 없어집니다. 가져간 친구가 누군지 알지만 그 친구는 창피해하지도 않아 합니다. 참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은 우리 집에도 도둑이 들었습니다. 집이 4층이었는데 기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 온 내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엄마 핸드폰도 아빠 노트북도 지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다른 선교사님들 가족과 바닷가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엄마 아빠는 못 가셨습니다. 물건이 없어진 것도 속상했지만 엄마 아빠와 바닷가에 못 가고 우리

만 선교사님 가족과 간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우리 가족은 범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도둑이었다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 해줬던 사람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해준 사람들이 나쁘게 행동하고 떠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뛰어오면서 우리에게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벌써 정문 쪽에서는 하얀 연기가 나고 아이들의 비명이 들리고 학교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며칠 전 이곳에서 테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흘러 상황이 진정되고 교실로 가보니 창문이 다 깨져 있고 물건이 없어지고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와 친구들은 안전하게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공격한 사람들은 시위대였는데 그중에 도둑들도 함께 학교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학교 앞에는 군 경찰들이 주위를 지켰고 학생들은 비상사태 시 안전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형은 학교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 지금까지 함께 지냅니다. 프랑스인 형인데 예수님은 안 믿지만 아주 착하고 나와도 친합니다. 나는 형처럼 그런 절친한 친구가 없었는데 전학한 학교에서는 만났습니다. 이름은 싸

미입니다. 모로코 친구입니다. 착하고 공부도 일등입니다. 그러나 싸미는 무슬림입니다. 음식도 아무거나 안 먹고 때마다 기도하고 금식 기간에는 놀라울 정도로 금식합니다. 싸미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 친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싸미를 위해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집은 다시 외곽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 앞은 바로 이슬람 사원입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요일은 집 앞 도로가 딱 차게 사람들이 앉아 예배를 합니다. 그 걸 보면서 나도 지지 않고 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싫고 나를 공격하고 약을 올리는 사람도 싫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만 8년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나에게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된 복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도 겪고 경험도 하면서 내가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키워주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와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내 삶을 통해 쓰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환이야!

늘 네게 사랑한다는 말하지만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왜 자주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걸까? 그건 아마도 네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네 글을 찬찬히 곱씹다보면 엄마는 그때 그 순간 네 마음과 같아지는 기분일까? ‘네 마음이 이리이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멘다. 네가 언어가 안 되어,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꾸중 듣고 유치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땠을까? 엄마는 지금도 그 마음이 되어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오히려 너는 담담하게 그때 일을 회상하며 상처받지 않았다니, 대견한 환이! 엄마도 그때는 너와 같이 적응하는 기간이라 힘들다는 핑계로 네 감정을 세밀히 읽지 못하고 가끔은 엄마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했어 환이야. 네가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아무리 상처받는 상황에서도 상처받지 않을 이길 힘을 주셨다.’고. 그리고 지금도 너는 엄마한테 말하잖아. 그때와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상처 안 받는다.’고. 엄마는 너의 그 말에 큰 위로를 얻어! 오히려 내가 너한테 은혜를 받는단다. 그리고 크게 안심이 된단다. 그 고백은 단지 너의 다짐이 아니라 믿음이라 생각되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큰 은혜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야.

환이야! 이제 너도 성인이 되어가고 머지않아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는 날이 올 테고, 어쩌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더 큰 일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 그때에도,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듯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김'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란다. 엄마 아빠 그리고 형은 늘 너를 응원해! 사랑하고 축복한다! 환이 파이팅!!!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24~26)

질문이 있어요 ?

- ◎ 프랑스에서 세네갈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 ◎ 모리타니에서 지내며 이곳에 나를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깨달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떻게 깨달으셨나요?
- ◎ 선교지에서 실망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모리타니 · 시엘(19세)

나의 아프리카 정착기



저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기에 저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앞으로도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2016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인천공항을 내려다보며 긴장되던 마음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미디어로만 보고 듣던 낯선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구름 사이로 사라져가는 서울 땅을 바라보며 열다섯 살의 어린아이로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세네갈이라는 알지 못했던 나라를 생각하며 저는 나름대로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초원, 전기도 없는 오지, 뜨거운 태양, 그곳을 뛰어다니는 동물들…….

어느새 비행기는 프랑스에 도착해 경유하기 위해 공항에 내렸습니다. 환승 게이트에 가까워질수록 많이 보이던 동양인과 백인들은 점차 줄어드는 대신 주변에는 낯선 흑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네갈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직후에야 저는 아프리카로 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온통 흑인들로 가득한 비행기에서 이륙을 기다리던 순간의 알 수 없는 낯선 감정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행기가 뜨고 5시간가량 더 비행해 세네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처음 느껴지는 낯선 공기와 착륙장에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는 긴 철장으로 둘러져 있었고, 철장 너머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손을 뻗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치던 모습은 저에게 이 땅에 대한 좋지 않은 강력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여 마주한 아프리카 대륙은 조금 전까지 상상했던 그런 곳이 아니라 밤의 불빛이 꽤나 멋있다고까지 느껴지는 말 그대로 ‘도시’였습니다. 인터넷이나 전기가 없을까 걱정하던 저에게 인공 불빛은 오히려 하나님의 작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가진 첫 3개월간의 적응 기간 후 저희는 언어 학습과 문화 적응을 위해 ‘더멋진세상’에서 돕고 있던 ‘본나바’라는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본나바는 저희 가정의 파송지인 모리타니로 가기 전 머무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저희 집은 더멋진세상 베이스캠프의 3개 숙소 중 하나였습니다. 대충 지어진 듯하고 마치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낡은 숙소와 그 옆에는 우리 집보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바오밥나무와 그 위에 지어진 멋진 나무 집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터넷은 물론이고 전기도 물도 연결되지 않은 그곳에서 처음 몇 개월을 달빛과 햇빛을 친구 삼아 살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 밤이 되기 전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해가 지면 촛불과 손전등을 켜고 오손도손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로 자는 그런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쥐와 뱀과 벌레들이 집에 들락거렸고 엄마는 매우 무서워하긴 했지만, 귀엽고 조그만 생쥐들은 마치 자기 집에 침입자가 왔다는 듯이 내 방의 방충망을 갇아 먹으면서까지 들어와서 잠을 자곤 했던, 옷을 수만은 없었던 그 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한국에 살았더라면 느끼지 못했을, 오지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머리로만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을 다녀야 했지만 본나바 마을에는 중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홈스쿨링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 적응을 위해 그곳의 마을학교인 케르발라 초등학교 6학년 반에 다니면서 언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케르발라는 우리 단체에서 지어준 학교로 전형적인 아프리카 현지 학교였습니다. 정말 다니기 싫었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언제 이런 경험을 하겠나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온 저에게 그곳의 학교는 매우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태양열 판넬에 연결된 벽에 달린 선풍기 두 대와 시멘트로 지어진 단층 건물은 항상 덥고 지저분했으며 낯선 냄새 또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케르발라 학교가 세워진 후 처음으로 다니는 외국인 학생이 된 저를 아이들은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뚜밥’이라고 부르며 처음에는 신기한 듯 관찰을 하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난 뒤에는 와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또 손을 만져보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면 꼬마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뚜밥’, ‘뚜밥’을 외치며 손을 잡고 집 근처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소심한 저는 가라고 소리치지도 못하고 괴로웠지만 손을 잡은 채 집 근처까지 오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뚜밥’은 얼굴이 하얀 외국인을 부르는 세네갈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네갈 이름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붙어 교재에서 본 단어들 중 마음에 들었던 ‘하늘’이란 뜻의 시엘(ciel)이라는

단어가 생각났고 부모님과 의논하여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늘 같은 사람이 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은 저의 의견을 들으신 후 그 이름이 마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구절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후로 저는 시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여기저기서 “시엘, 시엘!”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시엘, 어디 가니?”, “시엘, 너의 엄마 아빠는 어디 있니?” 하고 물어주었습니다.

케르발라 학교를 다니면서 불어를 배우게 되었고 아주 잘하진 못해도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구자비 선생님과 시스 선생님과 언어를 공부하면서 적응해 나갔지만 수업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아이들과 쉽게 친해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수업 시간이면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았고 점심시간이면 혼자서 주변을 산책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혼자 학교 주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던 시스 선생님이 “시엘, 커피 한잔할래?” 하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이후로 선생님은 케르발라에서 저의 좋은 인연이 되어주셨습니다. 선생님과 점점 친해지게 되었고 시스 가족들과 우리 가족도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생일파티를 같이하기도 하고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태권도 공연도 보여주고 악기 연주도 들려주었고, 선생님의 부인과 나의 부모님은 함께 불어

공부를 하며 더욱 친한 사이로 발전하였으며 즐거운 경험들로 그곳에서의 삶에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지내면서 본 선생님은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존경하게 된 계기는 좀 특별했습니다. 이슬람의 금식기간인 ‘라마단 기간’에 사막의 열기 속에서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물도 한 모금 못 마시다 보니 모두 지쳐 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그분은 뽀뽀하고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니셨습니다. 낮에는 금식, 밤에는 밤새 놓고먹는 라마단의 사이클 속에서 낮에는 수업도 못하고 뻗어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나 사람들과는 달리 매사에 열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지쳐 있는데 혹시 무슨 비결이라도 있냐고 장난기 있게 물어본 제 질문에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금식한다고 힘없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더욱 힘차게 지내는 것이 신과의 약속이고 금식의 이유란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금식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스 선생님은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그분의 성품은 누구보다 훌륭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계속 시스 선생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리라 믿으면서요.

그렇게 마을에서의 삶이 익숙해져 가던 얼마 뒤 본나바에 있는 지 1년이 채 안 되던 시간에 드디어 저희는 정든 마을을 떠나 파송지인 모리타니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지금까지도 본나바 마을에서의 생활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하지 않은 경험을 하며 영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던 시간이었고 금식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신 시스 교장 선생님과 교제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역하고 있는 나라는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세네갈과는 아주 많이 다른 나라입니다. 어려운 지역이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것을 원했기에 부모님을 따라 모리타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사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의 불어 실력으로는 입학받아줄 학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지인과 결혼한 미국인이 운영하는 작은 사립학교에 입학 허가를 얻어서 다니게 되었지만 불어가 아닌 영어를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영어로 중학교 과정을 따라잡기 위해 새벽까지 공부를 했어야 했고 친구들과 사이에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강한 느낌과 어두운 분위기는 나의 몸과 영혼까지도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학교생활을 하던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감사하게도 좋은 ESL 과정의 크리스티나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영어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선생님과 공부할 통해 에세이를 쓰고 과제를 해낼 수 있는 장족의 발전도 이루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들었던 모리타니에서의 첫 1년. 힘들어하는 나를 보며 부모님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며 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정적으로 라마단 금식 기간에 싸갔던 도시락을 먹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던 나를 보며 엄마는 많이 슬퍼하셨고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은 흘러 중학교 과정을 마쳤고, 선교지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지금은 부모님을 떠나 다시 세네갈로 돌아와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다카르 아카데미’는 미국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지어졌으나 세네갈 인근의 아프리카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고 있으며 기숙사를 지어서 부모를 떠난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학교입니다. 기숙사 생활은 내게 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숙사의 대리 부모님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선교사 자녀로 성장한 분이셔서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해주시기에 기숙사 생활은 감사한 시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면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힘들고 지쳐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교지로 나올 때 부모님과도 동일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나이로 나가는 거지만 너는 선교사 자녀가 아닌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오게 한 것

은 너를 위한 것이다. 너의 앞길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요즘도 가끔은 걱정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두렵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믿기에 앞으로도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진학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2년이나 늦어졌지만 다른 친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봤기에 나에게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나의 특별한 청소년 시절을 앞으로 더 큰 어른이 되었을 때 나의 뒤를 따라오는 친구들에게 “라떼는(나 때는) 말이야~” 하며 웃으며 이야기해줄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사랑하는 두 분이 나의 부모님이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 이름은 하나님님의 꿈을 품은 ‘시엘’입니다.





사랑하는 시엘,

어린 시엘의 손을 꼭 붙잡고 세네갈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그 낯설고 이상했던 느낌을 아빠 엄마도 잊을 수가 없구나. 우리 시엘이 그 순간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단다. 그때 그 기분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기분이었지! 낯선 언어들과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검은 피부색의 사람들. 그 순간의 기억을 되짚어보니 첫 느낌은 아마도 알 수 없는 낯설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길이었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가지는 두려움으로 긴장되었던 그 순간이 다시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구나. 그때는 그 땅과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몰랐었어.

모리타니는 온통 끝이 없는 사막의 모래 빛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한국의 초록빛의 산이 무척 그리웠단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프리카라고 하면 드넓은 초원과 정글을 상상하지만 모리타니는 모래와 대서양의 나라이다 보니 푸르른 숲속과 산이 그리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한 번 오르고 싶었지. 그러나 모리타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어.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상황 가운데 절망

하여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다. 내가 가진 재능이 아무 쓸모가 없게 느껴지고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해주셨어. “너는 이 땅에 내가 세운 교회이다! 너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좌절이 아닌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 시엘도 잘 알고 있듯이 한때 마을의 개발을 돕고 학교를 건축하는 과정에 많은 배척과 어려움이 있었지. 척박한 이슬람 땅에서 느끼는 메마름과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데 경계심 가득한 사람들, 잘 늘지 않는 언어에 대한 부담감과 뜨거운 사막 마을을 다니다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녹초가 되어 버렸지.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런 예배의 감동도 느껴지지 않던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있는 것이 맞나요? 주님께서 보낸 것이 맞나요? 한국에 있으면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 주님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들리지가 않았어.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메마른 땅을 걷는 것만 같았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깨달았어. 우리가 그 땅에 있으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들이 모리타니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셨고, 또 우리가 그 땅에서 예배 드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리타니 땅이 교회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이야. 이제 안식 시간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그냥 말을 좀 아끼고 싶구나.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역자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싶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의 길 가운데 결코 실패란 없으며 모든 것이 과정일 뿐이기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싶구나! 아빠 엄마의 답장이 시엘의 질문에 알맞은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다. 너의 글을 읽으며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의 동역자이며 동료 선교사인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어느새 어엿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시엘을 보며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며 성장해준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더 멋진 시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만나는 그 순간들을 위해 아빠 엄마는 항상 기도할게. 시엘 사랑하고 감사해.

하나님, 시엘의 삶에 주인 되어주셔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의 신앙이나 선택으로 선교지를 나간 것이 아니라, 시엘의 신앙과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엘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며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구하며, 시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9)



질문이 있어요 ?

- ◎ 아빠랑 엄마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나요?
- ◎ 아빠랑 엄마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선교지 몽골로 오게 되었나요?
- ◎ 선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나요?



몽골 · 김민서(16세)

의심하는 나를 사랑으로 잡아주시는 분



우리는 결국 쉽게 넘어지는 존재들이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예배는 주님께서 하시는 예배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뭐든 가능하고 주님의 힘으로 가능케 하신다.



우리 집에서 내가 다니는 울란바토르 한인교회, 즉 몽골에 있는 유일한 한인교회까지는 약 7km지만 1시간 동안 버스를 타며 다녔어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차가 많이 막혔어요. 유독 긴 겨울에는 교회 근처에 매연이 심해질 것을 대비해 교회에서 떨어진 곳에서 살았고 매연 대신 교통 시간을 감당해야 했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와 교회 두 곳이 다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몽골의 겨울에는 마스크, 장갑, 모자, 목도리로 온몸을 푹푹 싸매서 다녔지요.

교회의 중, 고등부에는 약 50명의 학생이 있고 선생님은 목사님 그리고 부장님이 전부였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로 올라간 나는 찬양팀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섬기고 예배 후 피드백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찬양팀을 했고 찬양팀의 리더였던 경험이 있어서 찬양팀을 더 하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교회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예배 준비로 아침 일찍 교회에 가야 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어 포기해야 했지만 주일마다 한인교회에 나갔고 가끔씩은 아빠가 섬기는 현지 교회에서 반주를 하기도 했어요. 현지 교회에서 반주를 섬기다보니까 다시 찬양팀을 하고 싶은 욕구는 점점 커져만 갔고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싶었어요.

몽골에서 여름보다 유독 긴 겨울에 왕복 2시간씩 차를 타고 학교와 교회에 다니기에는 너무 많이 지쳤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거 같아서 우리 가족은 이사를 준비했어요. 교회와 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으니 매연 정도는 감수해야 했지만 매연 말고는 모든 것이 좋았어요. 학교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고 내가 정말 원하던 찬양팀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배 준비를 위해 매주 토요일 아침에 모여 30분 동안 연습을 했고 주일에는 예배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피아노를 많이 연습하고 찬양도 많이 접해서 나의 음악 플레이리스트는 점점 가요가 아닌 찬양들로 가득해졌고 같은 믿음을 가진 언니, 오빠들이랑 친해지니 스스로도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그런 내 모습에 무척 기뻐고 주님께 감사했어요. 열다섯 살 나의 사춘기를 잘 보낼 수 있었고 부모님 역시 그렇게 느끼셨

어요. 과거의 나는 주말마다 무의미하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지만, 찬양팀에 들어가고 나서는 토요일마다, 그리고 일요일 예배 후에도 주님의 일을 섬기니까 정말 뜻깊었다고 생각해요.

찬양팀에 들어가고 두 달 안 된 2019년 6월 29일 난 토요일마다 드리는 일명 ‘30분 예배’에 인도자로 세워졌고 예배의 콘티를 짜게 되었는데 인도는 처음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고 자라서 많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콘티를 짰고 그 주제에 적합한 네 개의 찬양과 멘트를 준비했어요. 예배는 열심히 준비한 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나 스스로도 뿌듯했어요. 몽골, 낯선 땅에서 예배 인도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했어요. 예배 인도를 할 때마다 인도자로서 내가 느낀 하나님에 대해 나누게 하셔서 감사했고 점점 찬양팀이 내 일상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찬양팀에 들어간 지 1년이 안 되어서 나는 중고등부 본 예배도 인도하게 되었어요. 내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예배 인도를 할 때 사람들 시선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누구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겠지만 나는 정말 과하게 신경을 써서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집 밖의 사람을 조금은 두려워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예배가 아닌 주님이 일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준비한 콘티의 주제는 ‘주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주님 없이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마음, 즉 이기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닌 내가 주님께 찾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했고 특별히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교회 언니 오빠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이 다 같이 느끼는 것이 큰 바람이었어요.

난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이라 초등부 때 빠짐없이 여름 성경학교에 나갔고 여름 성경학교에 꼭 있는 기도 시간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는 또래 친구들이 다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어 보여 나도 따라 눈을 꼭 감고 기도하며 내 갈급함을 고백하고 처음으로 밤늦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주님을 처음 만난 시간이었고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겉으로는 울고 있지만 내 마음속은 성령님으로 인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때 느낀 소중한 감정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콘티의 주제를 주님과의 만남으로 택한 거였어요.

드디어 주일, 예배가 시작됐고 사도신경으로 각자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첫 찬양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였어요. 저는 속으로 정말 갈급하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집중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내가 선창을 하고 다 같이 찬양을 부르니 준비한 대로 잘하고 있는 거 같아

기뻐고 감사했어요. 내 마음은 차츰 안정을 찾았고 옆에서 찬양을 부르는 동생이랑 오빠, 앞에서 화면을 넘겨주고 음향을 조절해주는 언니들, 피아노 반주로 섬기고 있는 언니, 기타랑 베이스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한 예배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렇게 첫 번째 곡이 안정적이게 잘 끝날 무렵, 갑자기 어딘가에서 팡 소리가 나더니 마이크와 기타, 피아노가 연결되어 있는 앰프가 꺼졌어요. 계속 찬양을 인도하고 있던 나의 머릿속은 하얗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어요. 찬양팀 리더를 맡고 있는 언니와 음향 조절을 하고 있는 언니 둘이 앰프를 붙잡고 막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난 더 불안해졌어요. 분명 연습할 때는 멀쩡하던 앰프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인도할 때 꺼졌는지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예배를 멈출 수도 없고 꺼진 마이크를 든 상태로 계속 예배를 인도했어요. 두 번째 찬양을 시작하며 속으로 나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도할 때는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셨으면서 왜 내가 처음 인도할 때 이런 상황들만 가득하냐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감사했던 내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도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옷자락 만지면」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정말 가사 그대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비록 나오지 않는 마이크지만 계속 잡은 채 간절히 간구했어요.

여전히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그다음 찬양 「주님을 보게 하소서」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이크도 작동하지 않아서 그냥 가사와 하나님께만 집중했는데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라는 가사가 갑자기 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는 찬양을 하는 중에도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두려운 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눈을 감고 인도를 했어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크신 능력 보게 해달라고 정말 마음속으로 간구했어요. 그때 옆에서 싱어로 섬겨주었던 오빠가 다시 마이크를 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기분이 오묘하고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주님의 일하심 중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그리고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어요. 앞에서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들, 손 뻗고 구하는 사람들을 보니 울컥했어요. 마지막 곡으로 「주님 발 앞에서」를 불렀는데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느꼈어요. 우리는 결국 쉽게 넘어지는 존재들이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예요. 모든 예배는 주님께서 하시는 예배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뭐든 가능하고 주님의 힘으로 가능케 하세요. 예배를 인도할 때 감사를 느꼈지만 불안이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주님을 의심했던 나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

해 그게 감사로 돌아갔고 또 회개를 할 수 있는 예배였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후로 내 신앙이 커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제는 더 이상 예배가 나의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중심이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는 내가 되길 항상 바랐고, 의심하는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주시고 잡아주시는 주님께 감사했어요. 아직도 힘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때를 항상 떠올리곤 해요. 그때 주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때의 모든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기도편지

몽골 김주의, 김혜현 선교사

사랑하는 민서야,

네가 처음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 아빠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동기분이 자기 딸만 피아노 학원에 보내는 게 걸린다면서 네 피아노 학원비를 일 년 동안 지원해주신 게 씨앗이 되어 이렇게 찬양팀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딸로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

100일을 막 지나 처음 몽골에 와서 먼지가 푹푹 날리는 리모델링 건축현장에 딸린 숙소에서 살았지. 벽을 부수는 해머와 드릴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벌써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너의 모습을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과 함께 네가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특히 그동안 한국과 몽골, 그 안에서든 계속 사역지가 옮겨지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맞이하는 사춘기라는 가장 힘든 시기에 좋은 언니, 오빠들과 신앙 안에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네가 그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살뜰하게 대해주고, 챙겨준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에게도 큰 빛을 진 것 같구나.

사실 네 스스로도 세 명이나 되는 동생들 앞에서, 그리고 큰딸로서 잘하려고 애쓰는 너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미안하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가끔 그

런 너에게 엄마 아빠가 말로 또는 어쩔 수 없이 동생들을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너를 부담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 네 부담감
은 생각하지 않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며 너에게 희생을 강요하기도 했었던
것 같구나. 사실 너는 사랑을 받고 또 받아도, 더 받기에 충분한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만나고 계시고, 자라게 하고 계시는데 엄마 아빠의
프레임과 신앙의 방식으로 너를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 같아서 미안했어. 하지
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대가 되기도 해.
어쩌면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네 성숙한 모습에 엄마도 아빠도 많이 놀라워했어.

앞으로 너의 삶에 마주하게 될 수많은 일들, 그 일이 기다려지는 좋은 일이
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쁜 일이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하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일들이 우
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얻는 일이 될 거야. 왜
냐하면 가장 크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 될 테니까.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지
만, 장성해서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게 될 때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구나.
엄마 아빠가 응원하고 네 편이 되어줄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10)

질문이 있어요 ?

- ◎ 우리는 왜 한국에 가서 살면 안 돼요?
- ◎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 ◎ 왜 사람들은 변화가 잘 안 돼요?



영국 · 김다혜(14세)

우리도 느낄 권리 있어요



이 땅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겸손해져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드라마틱하거나, 너무 행복한 글은 안 써요. 그냥 진실을 쓰고 싶어요. 한글을 안 써서 좀 어색하네요. 사람들은 영국은 따뜻하고 환영받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완전히 정반대인걸요. 물론 우리는 모두 다른 경험과 관점이 있죠.

‘영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살고, 영국에서 죽는다.’

저는 웨일스가 너무너무 많이 싫어요. 지금 저는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돌같이 마음이 굳어져 잘 안 녹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뚝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달랑 성경책 한 권으로 어떻게 누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12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태어나보니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있었어요. 부모가 부자였거나 가난했을 수도 있겠지만 선교사의 자녀로 사는 것은 싫어요. 난 선교사가 되기 싫어요. 그냥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안 믿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것, 그리고 이곳에서 살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웨일스는 나보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돌덩어리인데 이들은 죽은 똥강아지 같아요. 내가 영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나보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영국에서 학교를 일곱 번 옮겼어요. 나는 쿨 집시 같다고 느꼈어요. 나는 자주 학교를 옮기고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와서 친구들과 깊이 친해지기가 어려웠어요.

아이가 느끼는 건 한정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느끼는 건 어리든 그렇지 않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전 여기서 망신을 당했어요.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중국인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과 달랐죠. 저는 사실 중국 사람이 싫어요.

간혹 좋은 것들이 제 과거에 들어와요. 내 인생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지루함, 중요한 것, 믿음. 제 가족들은 모든 것이 이 나라를 깨우기 위해 서라고 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으니깐. 그래서 이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돌과 돌맹이의 차이점은 돌은 다이아몬드, 루비 등의 보석을 품고 있을 수 있지만 돌맹이는 쓸모없는 부스러기지요.

저는 파수꾼이에요. 그냥 보고 듣고 있어요. 우리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돌을 맞고 많은 것을 겪었지만 사실 저는 엄마 아빠만큼 생생하게 느끼지는 못해요. 전도하러 갈 때 보면 새들이 꿈쩍 안 하고 똥똥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차가 다가와도 비둘기들이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선글라스 끼고 선팅하고 있는 비둘기들을 보며 영국인들과 어쩔 이렇게 똑같은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들을 보며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미래의 나를 상상해보면 의미 있지만 끔찍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전 이곳에서 백만 년 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영국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0.0001% 알까요? 엄마 아빠는 16년 살았는데 이제야 영국을 좀 알 것 같다고 해요. 털이 한 가닥도 없고 모두 빠져버린 강아지 같아요. 그래서 매일 추워요. 추위에 떨다가 결국엔 천천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한다. 현재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 (We have to forget the past. We just have to focus on the present.)”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요. 그런데 과거를 억지로 잊고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면, 즉 과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결국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 자신이 커온 시절을 잊는 것 같아요. 배가 불러서이겠지요. 하나님은 아이들은 천국에 간다고 하셨어요. 어른들은 아이 때 순수했던 시절들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귀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리라 믿어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요. 이 땅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겸손해져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를 보여주셨어요. 전 사실 만족하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감사해요.





부모님의 기도편지

영국 김영환, 김주영 선교사

사랑하는 우리 딸 다혜야!

다혜의 글을 읽고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다양한 생각이 드는구나.

먼저 우리 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네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는 다혜를 많이 믿는단다.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좀 못 미더울 때도 있지만, 첫째고 유일한 딸인 다혜를 보면 믿음직해서 어른처럼 대했던 것 같아. 부탁도 많이 하고. 다혜가 힘들어도 동생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어 정말 고마워.

영국에 와서 2년. 굴곡 있고, 영혼들은 상처받아 있고, 재정적으로는 힘들고, 일하고 선교하고 하루도 쉬는 시간이 없어서 참 힘이 들었지.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자녀를 주시리라 믿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였는데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혜를 선물로 주셨어. ‘지난 5년 동안 수고 많았구나.’ 하시면서. 그래서 네 이름이 다혜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고후12:9) 자연임신이 안 되는 나로서는 치유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를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단다.

네가 왜 우리는 꼭 여기서 살아야 하느냐고, 한국으로 가면 안 되냐고 할

때 화를 내면서도 그것이 내 마음 한쪽에 있기에 너를 탓할 수가 없었어. 글에 반영된 솔직한 네 감정이 사실 내 감정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더구나. 나도 때론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동역자 없이 가족도 없이 외로운 길을 홀로 가야 하는지, 한국이라면 다를 텐데, 다른 나라라면 다를 텐데, 주변에 한국인이 좀 있으면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든 땅, 차가운 나라, 거절과 상처로 가득 차서 마음 썩썩이 껍질로 가득 차 있는 이 나라로 보내셨는지 속으로 원망하며 많이 생각했다.

영주권 받는 데 16년. 통상 5년이면 다 받는 것을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그토록 기도했던 동역자는 어찌 그리 한 명도 보내주시지 않는지 정말 묻고 싶을 때가 많았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들과 씨름하며, 부어도 끝이 없는 밭 빠진 독 같은 영혼들, 겉과 속이 다르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며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난 마음을 잘 잡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진솔하게 고백하니 미안하고 안타깝고 뭐라 말하기가 어렵구나. 그런데 다혜야, ‘주님, 왜 저희를 이렇게 절박하게 만드십니까? 일정 기간은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16년을 살았어요. 최근 6년 뉴포트는 더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어디가 절박함의 끝입니까?’ 하고 절규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구나.

“얘야, 나는 빛도 창조하지만, 어둠도 창조한 하나님이라. 네가 절박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나를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네가 가장 두려워하

는 것 어쩌면 이미 이 문화에서 타협되어 내 빛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나는 네가 했던 지난날의 기도를 기억한다. 너의 평생에 죽는 날까지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니? 나는 네 기도에 신실하게 반응했단다. 그런데 나를 향한 너의 첫사랑은 어디 있니? 그렇게도 나를 간구했던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은 어디 있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또 응답하심을 많이 경험하게 돼. 복지 정책과 사회 시스템과 복잡한 여러 것들에 길들여 있어 아무리 주어도 감사가 없어 보이는 이들을 보며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아니었던 거야.

다혜야, 네가 ‘영국이 너무 싫어요, 죽은 똥강아지 같아요.’라고 말해도 나는 너의 진심을 알고 있어. 너도 잘 적응하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인종차별까지 받으니까 왜 이 나라에 있어야 하나 생각이 들지. 네게 정말 미안한 건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학교를 수도 없이 옮긴 것, 영국에서도 초등학교만 다섯 번 옮겼는데 이 시간이 정말 힘들었다는 것 알고 있어. 사실 엄마 아빠도 교회 개척과 계속되는 핍박,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힘들었기에 너에게 깊이 마음을 쓸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알았을 땐 이미 네가 갇혀 상처받은 후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최선을 다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밖에 없더구나.

그런데 주님께 그 부분을 아뢰며 기도하니 ‘미래에 다혜의 비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서 거치게 하셨다’는 마음을 주셔. 어떠한 거절감에도

강해져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다혜에게 다양한 학교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길 기도드려.

학교가 우울 자체라고 했지? 우울증 걸린 친구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다혜 가까이 두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돌 곳도 없으시고, 외롭고, 슬프셨어. 그래서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 상처받는 자,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거든.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 입은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가장 상처받는 모습으로 지내도록 하셔서 가장 깊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 같아.

다혜야! 8학년이 되어 더 밝아져서 감사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해주어 고맙고, 친구들도 더 많아져 감사해. 다혜는 정직하고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집의 바로미터라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좀 느슨해지면 다혜가 여러 가지를 통해 사인을 줄 때도 많거든.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기쁨과 소망의 징표를 보여주는 감사하고 귀한 딸 다혜야! 주님께선 우리보다 다혜를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귀한 길로 인도하셔. 웨일스가 싫다고 해도 사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성경 읽을 때 가장 영적인 기도와 답변을 가슴으로부터 하지. 그런 너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길과 방법을 다시 생각하게 돼. 크신 하나님께서 다혜를 향한 가장 좋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길

로 조금씩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어. 최근에 다혜를 우리의 동역자로 조금씩 성장시키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어. 너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를 거야. 사랑하는 우리 딸 다혜야! 지금까지 어려움을 많이 함께하고 참아 주고 도와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이 땅을 위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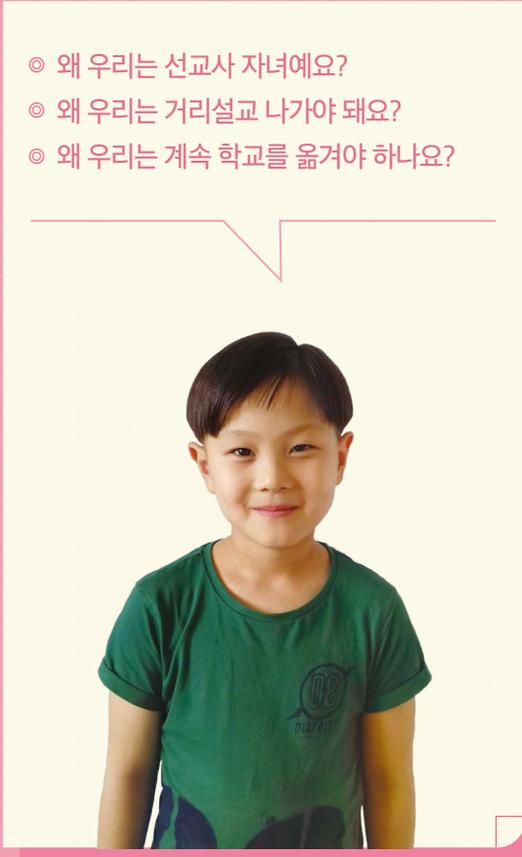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 다혜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장 아빠를 많이 닮은 딸이에요. 예리한 영적 감수성을 주셨는데 주신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장 귀하게 사용해주세요. 다혜의 이름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9)

질문이 있어요 ?

- ◎ 왜 우리는 선교사 자녀예요?
- ◎ 왜 우리는 거리설교 나가야 돼요?
- ◎ 왜 우리는 계속 학교를 옮겨야 하나요?



영국 · 김혜민(11세)

예수님, 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나는 때로 힘들지만 예수님, 이 핏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한 것에 비해서는.



‘예수님, 왜 나같이 어린아이를 핏박당하게 놔두세요?’

나는 영국 웨일스 뉴포트에 살고 있고 링란드 스쿨에 다닙니다. 네 살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코비제이가 여러 번 나를 때렸습니다. 여자아이가 나를 밀어서 얼굴에 큰 상처와 피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내가 영어를 못하고 피부색이 달라서였는지 아이들은 나를 싫어했고, 그래서 나는 학교 가기가 싫었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링란드에 우리 가족이 처음 이사 왔을 때 동네 아이들이 우리 집에 돌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전도하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만나는 형과 누나들에게 아빠는 항상 친절하게 전도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태권도 시범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은 돌아서면 우리 집에 장난치듯 웃으며 돌을 던졌고 아빠를 공격했습니다. 아빠가

앉아 있던 거실 창문에 갑자기 돌이 떨어져 하마터면 아빠가 죽을 뻔했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웠고 다른 집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11개월 동안 매일 집을 찾아 헤매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는 다섯 살이었는데 학교가 끝나고 바로 어두움 가운데 거의 매일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영국에선 10월부터 4시면 해가 집니다.) 우리가 집을 찾아야 했던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선교팀을 받자,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주인 아저씨가 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Heart Fire Church는 주변의 신고 때문에 뉴포트 시티센터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장소가 생겨 기뻐했으나 어느 주일날 가보니 교회 유리창이 모두 박살나 있었고 유리 조각들이 사방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많이 슬펐습니다. 왜 우리가 나쁘지 않게 하고 많은 영국 사람들과 노숙자들도 모두 돕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는지 슬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 이렇게 여덟 번 반복되었고 주인아저씨는 더 이상 창문을 바꾸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형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아빠에게 ‘목사님’ 하고 부르며 주먹으로 때리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와 우리 가족은 매주 거리에 나가 전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코리안’으로 우리를 알고 있고, 놀리며 장난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아빠와 우리를 핍박하는 이 도시가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핍박이 많아 이곳에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처음엔 화도 나고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지 힘이 들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나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고 똑같이 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떼쓰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을 때가 많지 않나?’

그래서 먼저 나의 악함을 없애고 다른 사람들의 악함도 변화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게이입니다. 처음엔 안 믿었는데 맞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다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진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자 형, 누나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때로 힘들지만 예수님, 이 핏박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한 것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핏박할 때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의 기도편지

영국 김영환, 김주영 선교사

자랑스러운 아들 헤민아!

네 글을 읽고 있으니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구나! 그래, 우리 헤민이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헤민이가 ‘괜찮다고 잘 기억 안 난다’고 해도 헤민이가 엄마 아빠 슬플까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알고 있어. 헤민이는 인내심도 강하고 마음도 착하고 누구보다 양보도 잘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잘할 거라고 믿는단다.

헤민이가 네 살 때 링란드 학교에서 친구에게 7번에 걸쳐 맞고 온 얼굴이 상처로 뒤덮였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이토록 힘들게 학교 생활하는지 몰랐지. 엄마 아빠도 교회 개척과 생활이 힘들어서 네가 힘든지 돌아보지 못했는데 후에 그렇게 되어 많이 울었어. 엄마도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코비제 이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너를 보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했단다.

사실 헤민이는 태어나서 9개월에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아빠가 2년 동안 너 무 아파서 너희들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어. 엄마는 직장 나가야 했고, 어린 너를 종일반 보내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2, 3주마다

선교관을 옮겨 다녔을 때(23번 이동) 돌봄을 받아야 하는 우리 아기 헤민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렇게 예쁜 아기 헤민이에게 정말 미안했단다. 그래도 너는 항상 밝게 웃으며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지. 그래서 난 항상 네가 잘 지내는 줄로 알고 있었단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항상 일어서고 밝게 웃는 아이여서 주님의 은혜로 긍정적인 아이라고 생각했어. 항상 참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도 안으로 깊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경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랐어. 그런데 작년 5학년 때 미스터 월모어 담임선생님 만났을 때 헤민이가 영어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집에 와서 너를 많이 혼냈지만 네가 공부를 잘 못 따라가는 것이 사역으로 정신이 없어서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인 것 같아, 또 그동안 안정된 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를 책망하며 많이 울었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

‘왜 주님께서 저희에게 동역자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가족도 없이 어린아이들 3명과 저희 부부가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으십니까? 한국에 있었더라면’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너는 아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까지 내버려 두어야 했던 내 마음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며 울었어. 9개월에 말을 하고 한국에서 그렇게도 영리한 아이였던 네가 영어를 잘 못 한다는, 즉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엄마 아빠는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아프셨다고 하니 할 말이 없더구나. 너에게 영어 읽기를 시킬 때 엄마 아빠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어. 하지만 헤민이가 서운해도 하나님께서 원

하시는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충실히 밟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 이해하길 바란다. 그리고 너도 알고 있듯이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 그렇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어. 물론, 처음부터 좋은 환경이어서 잘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헤민이는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공부하니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어.

4학년 때 에브(분노 조절이 힘든 아이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악몽 꾸고 쫓겨 다니고 힘들어해서 엄마 아빠도 힘들었다. 지금까지도 가끔 힘들어 하지만 이번에 착한 어린이상 받으니 주님이 우리 ‘헤민이가 얼마나 에브를 위해 기도하고 참았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더구나. 선생님들이 왜 헤민에게 자꾸 짝으로 붙이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우리의 계획이 아닌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기에 요셉같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 품으며 나아갈 때 당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 전에는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너희들을 기르며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 “너는 신뢰하느냐? 내가 헤민의 창조자임을. 너보다 앞서 그를 창조하고 만든 그의 아버지임을.”

헤민아! 하나님은 넓고 크셔. 또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셔. 헤민이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학교 친구들 모두 예

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소원이라고 했지?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어. 헤민이가 핍박받아도 아이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 알고 있어. 지금은 우리가 핍박받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 정말 헤민이에게 고맙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할 날이 있을 거야. 우리는 믿어.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 헤민아, 한계 많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들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구나. 코로나를 겪으며 확인시켜주신 것이 있어. 그렇게도 동역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응답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너희들이 더 이상 어린 아기가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어. 아직도 모두가 연약한 면은 있지만, 헤민이가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동역자임을 생각하며 깨닫게 해주셔서 엄마 아빠는 정말 감사하단다.

이전보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너희들을 바라보며 그분의 크신 계획을 믿고 신뢰한다. 척박한 땅이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교사로 불렀지 않느냐? 누군가 필요해서.’라고 말씀하시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헤민이가 영국을 좋아해서 또 감사하고 친구들과라도 사이좋게 지내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정말 많구나. 헤민이의 트레이드 마크 스마일처럼 일곱 번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길 기도드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당신 손에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주시옵소서. 당신의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창세기 15장 6절의 히브리어 동사의 헤민 이름대로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믿고, 믿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지경을 볼 수 있는 안목과 타협과 미혹이 가득한 이곳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같이 어떠한 환경에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데(단 12:3) 쓰임 받는 아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3)

질문이 있어요 ?

- ◎ 왜 중국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 ◎ 왜 우리는 라오스로 오게 되었을까요?
- ◎ 앞으로 나는 어떻게 자라서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라오스 · 전유진(12세)

중국에서 라오스로



일 년 동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중국인지 한국인지 아무 인식이 없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엄마 품에 안겨 중국으로 왔습니다. 아마 가장 어린 비행기 탑승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단지, 우리 집, 학교, 한인 도서관, 교회가 내 생활의 대부분이었지만, 그곳이 익숙했고 나에게는 고향과 같았습니다. 방학 때면 아빠 엄마를 따라 시골에도 함께 방문하고 중국인 언니 오빠들도 우리 집에 와서 우리랑 잘 놀아주었습니다. 그 고향 같은 곳에서 10년간량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나의 마음의 고향처럼 편한 곳이었고 특히 내가 자란 곳은 봄의 도시 쿤밍이었습니다.

2019년 7월 어느 날, 우리 가정은 중국에서 완전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떠난 이유는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들을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닌 MK 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았지만, MK들이 함께 배우

고 자란 곳입니다.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수십 명의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교실 문을 잠그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공안들이 다 갈 때까지 우리는 숨죽이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찾아와 내세운 이유는 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시끄럽다는 거지만 사실은 선교사를 쫓아내고 학교를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나는 3학년이었는데 갑자기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교장 선생님이 먼저 추방되고 학교는 위기 상황이 되었고, 함께 공부하던 언니, 오빠들, 그리고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몇몇은 아직 중국에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대만 등으로 흩어졌으며 우리 가족은 라오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매주 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했고 여기저기서 섭섭해하고 헤어지기 아쉬워서 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계속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웠지만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우리 가족도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황량한 겨울이었지만 중국에서 나오게 된 우리를 교회는 따뜻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들어와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김치며 생활용품이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머물던 숙소 앞에 생필품이 들어 있는 박스를 통째로 그냥 두고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나와 언니는 엄마와 함께 다시 중국에 들어갔다

5개월 후 다시 한국으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엄마가 공부를 마칠 즈음 비자 기간도 만료되어 더 이상 중국에 남아 있을 수 없어 한국으로 완전히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짧은 기간 다시 준비하고 라오스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라오스가 더워서 적응하는 데 매우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던 쿤밍은 건조하고 시원했지만 여기는 늘 타들어갈 듯 덥고 습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학교를 오가는 동안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얼굴이 빨갱게 익어서 오기 십상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를 처음이었습니다. 40도를 웃도는 날씨, 늘 20도 정도에서 살던 우리가 40도의 온도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갔다 돌아오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씻을 수밖에 없는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얼음물과 선풍기, 에어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내 몸엔 땀띠가 있긴 하지만 이제 여기에 온 지 1년, 이 더운 날씨도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는 VGGGS(Vientiane GAIN Glory School)입니다. 우리 학교는 자기 주도형 학습으로 혼자서 공부합니다. 물론 모르는 부분은 질문하면 선생님이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학교로 왔을 때는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영어로만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낮은 학년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상했습

니다. 근데 일 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언니는 열심히 공부하더니 벌써 자기 학년으로 돌아가서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어렵기만 했는데 이젠 조금씩 익숙해져 갑니다. 여기 와서 나는 두 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친구가 생겨서 너무 다행입니다. 한 명은 여기에 온 지 2년 된 아이이고 한 명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그다지 친숙한 느낌을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아직 영어와 라오스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아이들과 충분히 공감을 못 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좀 더 지나서 내 영어 실력이 좋아지거나 라오스 말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라오스 친구들은 밝고 시끄럽습니다. 난 학교에서 배운 영어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찬양과 율동을 잘해서 500달란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새로운 동아리 퀴트반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잘 못 하지만 재미 있습니다. 요즘 나의 취미는 그리기와 만들기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 때마다 성취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와서 일 년 동안 10센티 정도 자랐습니다. 키가 많이 자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새로운 곳에 온 지 일 년이 되어갑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일 년 동안 이곳에 적응하느라 고생했습니다. 특히 사춘기인 언니는 이곳에 적응하는 것이 나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일 년 동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유진아!

유진이의 글을 보면서 지난 이 년 동안 있었던 혼란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시 생각이 났어. 그렇게 우리는 중국을 나오게 되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것 같구나. 어른들만 힘든 시간이 아니었고 너희들도 그 소용돌이 중심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동안은 MK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어릴 때 타 문화에 노출되어 오히려 더 넓은 시각으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자라지 않을까 하며 너희가 누리게 된 복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축복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구나.

철수와 재정착. 이 두 단어는 엄마도 인생에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단어가 되어 버렸네.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감사하게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늘 너희가 중국을 그리워하는 말을 할 때마다 엄마도 그곳이 너희들만큼 그리프고 돌아가고 싶은 곳이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구나. 나중에 이 상황이 다 진정되고 갈 수 있게 될 때 우리 같이 가보자꾸나.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을 주셔서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학습 언어가 바뀌면서 너희에게 적잖은 어려움을 겪게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 그래도 곳곳하게 잘해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지, 힘들면 좀 쉬어가고 또 힘이 비축되면 뛰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 유진이도 다다라야 할 지점에 와 있지 않을까 생각해. 그동안 우리 주님이 유진이의 키도 키워주셨지만, 키만큼이나 마음도 많이 키워주셨잖아. 유진이는 공감 능력도 좋고 마음도 따뜻해서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성품을 가졌어. 그게 너의 매력이야. 우리 가족이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유진이가 함께여서 잘 지나갈 수 있었어. 고마워.

사랑하는 하나님

아이들이 떠남과 정착의 시간을 보내면서 적잖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곳과 이별하고 낯선 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퍼신 팔로 안아주시고 인도해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도 자라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변해서 감사와 성숙의 시간으로 인식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사춘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감하고 예민한 시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위로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1)

질문이 있어요 ?

- ◎ 선교 갈 나라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 복음을 왜 하나님이 직접 안 전하시고
우릴 쓰셔서 전하게 하시나요?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국내 · 한정원(19세)

조금씩 그러나 계속



복음은 그 고난들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선교 현장에 살면서 몸소 느껴왔다.



“우리 중국 간다고? 근데 중국이 뭐야?”

중국이라는 말조차 모르던 나이에 나는 중국에서 살게 됐습니다.

“중국은 외국이야. 우리랑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집 앞에 바닷가도 있어. 좋겠지!”

엄마는 어떻게든 우리가 중국을 좋게 인식하게 하려고 나름 애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엄마의 그런 노력이 아니어도 나는 새로운 나라를 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중국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홉 살의 나는 설렘을 잔뜩 품고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배를 타고 항구에 도착해 처음 느낀 중국은 내 순수한 기대를 박력 있게 깨버렸습니다. 항구 안 뻣뻣한 중국인들 사이에 몸이 구겨진 채로 우린 그 많은 짐을 겨우 확보했는데 몸이 몇 번이나 치였는지, 중국인들에게는 배려라는 선택사항은 없는 듯했습니다. 항구 밖에는 우리나라에서 맡은

적 없는 푹푹한 냄새와 목이 턱 막힐 정도로 가득한 매연과 중국인 특유의 거센 목소리가 하모니로 어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날 날씨가 유독 흐렸습니다. 내가 상상한 중국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요. 화창한 날씨 아래 웃으며 친절하게 우릴 맞아주는 중국인들과 내가 한국에서 본격 없는 온갖 재미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갖고 온 건 설렘밖에 없었는데. 아마 그날이 아홉 살 인생사 허무함이란 감정을 처음 느낀 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산동성에서의 학교생활은 그날 느낀 허무함이 무색하게 엄청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힘든 건 학교 다닐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글 문맥상 여기서 좀 희망찬 얘기가 나와야 입을 맛이 나겠지만 아닌 걸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 학교는 어린 내게 너무 하드코어였습니다. 우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저녁에 일찍 자기 싫어서 잔머리를 굴리며 깨어 있었는데 중국 학교에 다닐 땐 하루 중 자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등교하면 8시간 동안 알아듣기 힘든 말을 알아들으려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한번은 한 사람씩 차례대로 교과서에 쓰인 글을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벌레같이 보이는 한자를 나뉠 배운 대로 천천히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글자를 틀리게 읽었는데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하다가 곧 아이들의 깔깔 웃음소리로 메워졌습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새빨개졌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험도 당연히 중국어로 봐서 다른

애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다 못 푸는 날이 빈번했습니다. 난 나름 끔
끔대면서 열심히 풀었지만, 수학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매번 늦게 낸다
고 얼굴이 상처 나도록 마구 꼬집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짜
증을 풀던 선생님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숙제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숙제를 하다가 잘 시간이 되면 부모님이
그만하고 자게 하셨지만 나는 꼭 숙제를 다 해야만 했습니다. 중국 애들
한테 창피당하기 싫어서 한동안은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거실에서 스탠
드를 켜놓고 숙제를 했습니다. 얼마 안 가 부모님께 들켰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일찍 부모님이 깊이 잠든 시간에 일어나
서 화장실에 숙제와 스탠드를 들고 갔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서
스탠드 조명 아래서 숙제를 했습니다. 뭔가 상황이 비참해 보이긴 하는
데 사실 그때는 비참하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했
습니다. 선생님께서 꼬집힘 당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숙제
를 다 못 끝내는 날이 있으면 그날 등굣길은 최악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혼자 선생님께서 혼나는 장면을 수십 번 돌려봤고 하나님한테 ‘제발 아
무도 내가 숙제 안 한 걸 모르게 해주세요, 제발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엄마 오기로 했던 말이야!”

동생이 처음 학교에 다니던 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영영 울었습니다.
그때 학교에 한국인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날 찾아오서
서 동생을 좀 달래라 하셨습니니다. 왜 이렇게 우나 했더니 동생 반 미술

선생님이 동생이 준비물을 안 가져왔다고 가방이랑 책상을 뒤엎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동생을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상황이 싫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릴 이 학교에 둔 것도, 우는 동생도 짜증 났습니다. 학교에 적응 못 하는 내가 싫고 첫날부터 동생이 우는 것도 싫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적어도 아홉 살의 나에겐 틀린 말이어야 했습니다. 나에겐 돌아갈 나라가 있고 그곳에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그때의 날 그나마 버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산동성에서의 생활이 불행했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내게 작은 행복들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학교생활로 힘들어하는 걸 알고 계셔서 전학도 여러 번 보내주셨고 쉬는 날엔 최대한 잘 놀아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말마다 놀러 나갔는데 거창한 곳을 간 건 아니었고 집 근처를 쭉 걸어 다니거나 공원에서 인라인과 자전거를 타며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더우면 집 앞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조개를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삼 남매라서 같이 노는 것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과도 잘 놀았습니다. 우린 그 애들한테 중국 놀이를 배우고 그 애들은 우리에게 한국 놀이를 배우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심심하면 밖에 나가서 동네 애들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던 어느 날 아빠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아니 어디 안 가.”

“아닌 거 같은데…….”

엄마 아빠의 행동은 딱 봐도 집을 비울 모양새였습니다.

며칠 후 학교 스쿨버스 안에서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갈 거니까 짐 싸고 있어.”

우리 삼 남매는 버스 안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한국 간다. 예~!”

그때 뒤에 앉아 있던 한국 친구가 우리 말을 듣고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난 아빠가 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지, 왜 일주일 전에 갑자기 말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전화로 말을 하다니 아빠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렴 어때, 우리는 날아갈 듯한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해 짐을 쌌습니다. 부모님은 남기고 갈 옷이랑 장난감을 따로 빼놓으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가난한 소수민족 가정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도 그 가정에 대해 아빠한테 익히 듣고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내가 평소에 아끼는 옷을 몇 벌 빼놓았습니다. 장난감은 다 놓고 갈 것이었고 딱 하나 제일 아끼는 핑크색 공 하나를 가방에 챙기려는데 그 공이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언니, 핑크색 공 언니가 챙겼어?”

“아니.”

그때 아빠의 움직임이 수상했습니다. 소수민족 가정에게 줄 꾸러미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꾸러미 사이로 핑크색이 반짝였고 나는 바로 아빠를 따라가서 달라고 얘기했지만, 아빠는 넌 똑같은 것을 또 사면 된다고 날 타일렸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그 애들한테 가는 게 더 좋을 건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무 아끼는 공이었고 아빠가 다른 애들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아서 난 씩씩거리며 화난 티를 무척 냈습니다.

며칠 뒤 집 앞에서 그 소수민족 가정의 아이들과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들은 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옷 주인이 나라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처음 몇 초 동안은 나도 그게 내 옷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새 내 옷은 추레한 그 아이들 옷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밑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전 공을 빼앗겨서 내었던 그 화는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선교사를 하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걸 원할까요? 아마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셨을지 모릅니다. 또 우리 부모님도 선교지에서 늘 힘든 상황을 겪으십니다. 어쩌면 나보다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을 버티게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릴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믿는 우린 그 일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복음은 그 고난들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선교 현장에 살면서 몸소 느껴왔습니다.

현재 내 비전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게 된 비전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조금씩 계속 복음을 향한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교실 안에서 애들의 놀림거리가 될 때도, 중국 선생님에게 맞을 때도, 학교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폐렴이 걸렸을 때에도, 내 옷을 입고 해맑게 노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도, 엄마 아빠가 누군가를 전도한 이야기를 해줄 때도, 중국에서 하루아침에 추방당했던 그날에도 조금씩 계속. 날 힘들게 한 중국을 미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의 삶을 통해 지금 내게 남기신 마음은 원망과 증오가 아닙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더라면 하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복음 없는 이들의 삶을 겪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행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계속!





사랑하는 딸 정원아!

네가 쓴 글을 읽고 먼저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아빠 엄마가 선교 사명만 생각하다 너희들에게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 너희들이 현지 학교에서 느낄 이질감과 당혹감 등을 추측만 할 뿐이었지 이번 글을 통해서 좀 더 실감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엄마만 믿고 따라와 준 너희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아직까지 어릴 때 겪은 사건들이 상처로 남아 있다면 아빠 엄마를 용서해주시기 바란다. 아빠 엄마도 현지를 다 알고 갔던 것이 아니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는데 그 충격들이 너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 같구나.

그런데 정원아, 한편으로는 네 글을 읽으면서 아빠 엄마의 많은 실수 가운데도 네가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고맙고 기쁜 마음도 든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벅찬 경험들이었겠지만 곳곳하게 견뎌내고 잘 이겨내 줘서 정말 고맙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를 더 단단하게 해주시고, 이 경험들이 앞으로 네 인생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품어본다. 정원아, 앞으로 펼쳐질 너의 미래를 축복한다. 너의 이름의 뜻처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나래를 펴고 너의 꿈과

비전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한다. 정원아, 사랑해.

하나님,

정원이가 어린 나이에 환경이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먼저 저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을 용서해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아이들에게 남아 있는 선교지의 상처들을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어서 저희 아이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주의 품 안에서 뛰놀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옵소서. 이들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의 쓴 경험들이 밑거름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튼튼하고 아름다운 재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 2:10)

2020 선교사 자녀들의
마음속 이야기

마주 보다

발행인 이재훈

발행처



발행일 2020년 12월 11일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번호 02-3215-3212

기획, 편집 2000선교, 장화연

디자인 시아와세(c-awase.com)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빅토르 위고, 『레미제라블』